



1974年을

世界の 모든 跆拳道人을 위한 機關誌가 될 것을 標榜하고 創刊된 跆拳道誌가 通卷十一號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發展은 人類文化의 모든 歷史가 記錄에 의하여 保存繼承되어 왔듯이 우리의 國技인 跆拳道의 發展過程을 記錄 保存하여 後世에 傳한다는 歷史의 意義와 國內外 跆拳道人의 對話의 廣場이 되고 있다는 現實의 意義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974年 新春을 맞이하여 끊임없이 前進을 거듭하고 있는 跆拳道人 여러분께 뜨거운 感謝를 드리면서 다음 몇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올해는 跆拳道 宗主國으로서의 內實을 期하는 한 해가 되도록 努力하여 주시길 당부하는 바입니다.

無限히 發展을 거듭하는 人類文化의 歷史는 오늘의 現象과 來日의 版圖를 달리할 수 있다는데서 우리는 지난날의 業績에 自滿하거나 그 幻影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라는 自覺을 다져야 하겠읍니다. 世界로 뻗어가고 있는 跆拳道는 踏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無限한 發展을 거듭하고 있을 것이라는 嚴肅한 現實을 直視하고 銘心해야 할 것입니다.

모래위에 지은집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韓國 跆拳道의 世界 進出과 跆拳道宗主國으로서의 우리의 面貌를 나날이 새롭게 하고 길이 維持하는 길은 오직 뼈를 깎는 듯한 自己 修練만이 最善이고 唯一의 길인 것입니다.

둘째, 跆拳道를 世界の 스포츠화하고 世界에 土着化 시키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資質向上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資質向上은 지난날의 失意와 無氣力을 딛고 일어서서 다져놓은 오늘의 이 基盤을 헛되지 않게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跆拳道를 世界の 스포츠화 하고 世界에 土着化 시키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者를 돕는다는 自主精神에 立脚하여 統一된 품세와 競技規則을 完全히 消化하여 어떠한 狀況下에서도 對處할 수 있는 萬般의 準備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跆拳道는 護身術이나 鬪技와 같이 單純한 技術에 不過한 것이 아니라 精神修練에 重點을 두고 있음을 勘案하여 資質向上과 함께 人格陶冶에도 盡力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跆拳道 精進의 해로

大韓跆拳道協會會長
世界跆拳道聯盟總裁

金 雲 龍

셋째, 本人은 大同團結을 主唱합니다. 內實을 期하고 資質을 向上하여 저마다 높은 境地에 이르렀다고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民族中興의 歷史的 使命을 完遂하려는 이 瞬間에서 民族統一의 大命題아래서 150萬 跆拳道人은 더 나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야 하겠습니다. 總和團結은 偉대한 힘을 發揮하게 됩니다. 모래를 굴리는 작은 시냇물이나 추녀끝에서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모이고 모여 바다를 이루면 배를 뒤집을 수 있고 섬을 삼킬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時期에 處했을 때나 難關에 부딪혔을 때 全體를 위하여 個人을 犧牲하고 私利를 超脫하여 大義를 찾아 눈을 돌리는 跆拳道人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來日의 跆拳道世界는 더욱 알차지고 보람찬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本人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意志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聖賢은 말씀하셨습니다.

待望의 1974年입니다.

祖國이 統一의 基盤을 다지고 이 民族雄飛를 위해 온 國民이 總和前進하는 이해에 우리 跆拳道人은 더욱 內實을 期하고 資質向上과 大同團結로서 跆拳道史의 새로운 里程碑를 다져 나갑니다.

그리고 世界跆拳道聯盟의 同志 여러분!

本人은 韓國 跆拳道界를 代表하여 여러분께서 跆拳道에 보여주신 熱意에 뜨거운 感謝를 드립니다. 또한 悠久한 文化의 遺産인 韓國의 國技跆拳道를 받아들여 普及시킨 여러분의 熱意에 깊은 友情을 보내면서 新春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健康과 跆拳道發展에 無限한 精進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跆拳道로 이루어진 紐帶를 더욱 鞏固히 하고 跆拳道를 世界에 土着化 시킬 수 있는 모든 努力을 다 합니다.

本人은 新春을 맞이하여 世界跆拳道聯盟會員國에 師範과 任員을 派遣하고 技術交流와 競技普及를 保進할 것이며 7월에 第一回 아시아 跆拳道 選手權大會를 서울에서 開催할 計劃입니다.

窮極의으로는 世界 各國에서 跆拳道競技가 이루어져 世界의 스포츠로서 우리의 跆拳道聯盟旗가 올림픽 大會장에 나부끼기를 期待하는 바입니다.

1974年을 跆拳道 精進의 한 해로 삼읍니다.

一九七三年度 代議員總會

The 1973 General Meeting of Delegates to the Association



內實을 期約한 74年の 跆拳道

대한태권도협회 1973年度 定期대의원총회가 1974年 1月 13日 午前 10時 대한체육회강당에서 中央 및 道, 市支部대의원과 새로 결성된 國民學校와 中高 및 大學 聯盟의 대의원 三名을 포함한 27名(불참 3명)이 모인 가운데 開會되었다.

本會議은 國技院의 建立, 世界태권도聯盟의 결성 및 태권도 세계대회 開催 등 한국태권도史의 새로운 章을 이룬 歷程을 회고하고 새해를 맞이하여 新年度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의욕에 가득차 있었고 會議場은 그 어느때보다도 活氣와 굳은 決意에 차 있었다.

1974年 1月 17日로 취임 3週年을 맞는 金雲龍會長은 開會辭에서 『急變하는 國際情勢에 따르는 어려운 狀況에 놓인 우리 跆拳道人은 올바른 跆拳道精神에 立脚하여 치밀한 計劃을 세우고 實效向上을 爲한 徹底한 研究가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國技院의 設立도 단일화되었고 世界聯盟도 發足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自覺하여 태권도를 世界의 스포츠로 發展시킬 수 있는 組織的인 生活와 研究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確立해야만 된다』고 말했다. 會長人事에 이어 李啓光 監查의 감사보고와 姜元植 事務次長의 過年度定期總會 會議錄 朗讀이 있는 다음, 代議員들은 이를 異議없이 通過시켰으며 1973年度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도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되었다.

이어서 신년도 임시의장에 전북대의원 유병용씨의 추천으로 전남대의원 진철씨가 만장일치로 選出되어 제2호 案件인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에 들어갔다. 임준규 사무총장이 작시도 支部와 各聯盟에 74年度부터 年間 4分期로 나누어 每分期마다 5萬원씩 年間 20萬원의 보조금지급이 확정되었다는 보고를 하자 대의원들은 이를 박수로서 받아들였고, 제2안건 (1974年度 事業豫算案)도 무수정 통과 되고, 기타 안건에 있어

이일성 대의원은 72年度에 25名 定員의 代議員이 73年度 총회에서 5名의 增員원에 대한 질의가 있자 엄윤규 사무총장은 “國民學校와 중고연맹 및 대학연맹의 결성으로 증원된 것”이라고 답변함으로써 정기총회는 막을 내렸다.

이어 베풀어진 오찬회에서 대의원들은 全跆拳道人을 대변하여 지난 한해동안 世界聯盟의 결성, 世界大會의 開催와 年前 숙원이던 國技院의 建立 등으로 태권도사의 새로운 章을 이룩한데 기여한 金雲龍會長에 감사말 포함과 동시에 上下가 一致단결하여 새해를 도약의 해로서 손색없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굳은 決意를 보였다. 本會議에서 決定된 1974年度 事業계획과 1974年度의 收支豫算은 다음과 같다.

<1974년도 협회收支 예산액>

ㄱ) 收入—62,125,089원

ㄴ) 支出—62,215,089원

내역) 1) 제1회 아세아 선수권대회...24,500,000

2) 국내대회(11회).....3,442,600

3) 교육예산.....3,616,600

4) 간행물예산.....6,560,000

5) 각시도지부보조예산.....2,400,000

6) 기타예산21,606,289

<1974년도 국기원 예산>

ㄱ) 수입—44,032,493

ㄴ) 지출—44,032,493

(內譯省略)

1974년도 국기원 사업계획서

순번	월	일	사	업	명	장	소	비	고
1	1	7~12	제1회	초·중·고 체육교사 및 태권도 지도교사 연수교육		국기원			
2	2	10	제23회	소년부 승단심사대회		"			
3	3	1	제57회	전국 승단심사대회		"			
4	3	10	제24회	소년부 "		"			
5	4	5	제25회	소년부 "		"			
6	4	15~20	전국	지도자 교육		"			
7	5	4	제26회	소년부 승단심사대회		"			
8	5	15~20	국제	심판 강습회		"			
9	5	12	제58회	전국 승단심사대회		"			
10	5	27~29	전국	지도자 보수교육(자격증 소지자)		"			
11	6	6	제27회	소년부 승단심사대회		"			
12	6	9	고단자	승단심사대회 (4단이상)		"			
13	7	7	제28회	소년부 승단심사대회		"			
14	7	17	제59회	전국 "		"			
15	7	22~27	지도자	교육		"			
16	8	5~10	전국	지도자 교육		"			
17	8	11	제29회	소년부 승단심사대회		"			
18	8	19~28	소집	교육(해외 수련자 초청교육)		"			
19	8	23~25	전국	중·고 태권도 지도교사 특별연수교육(2회)		"			
20	9	7	제30회	소년부 승단심사대회		"			
21	9	9~14	유단자	연수교육 (일반, 소년)		"			
22	10	3	제31회	소년부 승단심사대회		"			
23	10	14~19	전국	지도자 교육		"			
24	11	10	제32회	소년부 승단심사대회		"			
25	11	18~20	전국	지도자 보수교육 (자격증 소유자)		"			
26	11	23	고단자	승단심사대회 (4단이상)		"			
27	11	24	제60회	전국 승단심사대회		"			
28	12	8	제33회	소년부 "		"			
29	12	9~14	전국	지도자 교육		"			

1974년도 협회 사업계획서

순번	월	일	사업명	장소	비고
1	2	15~16	전국 심판원강습	국기원	
2	3	8~10	제3회 전국 소년 스포츠대회 서울 예선대회	"	
3	3	22~24	1974년도 전국신인선수권대회	"	
4	5	5~8	제3회 전국 소년 스포츠대회	경기도	
5	5	17~19	제9회 대통령하사기생발 단체대항전	국기원	
6	5	24~26	제4회 전국 국민학생 및 여자부 개인선수권대회	"	
7	5, 6	31~2	제1회 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 한국대표 선발대회	"	
8	6	22~23	제5회 주한외국인 및 여자개인선수권대회	"	
9	6	29~30	전국 심판위원 강습	"	
10	7	12~14	제1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	"	
11	9	6~8	서울특별시 체육대회겸 제55회 전국체전 서울예선대회	"	
12	9	20~22	제2회 회장기정탈 전국국민학교 단체대항대회	"	
13	10	5일간	제55회 전국체육대회	서울	
14	11	22~24	1974년도 전국우수선수 선발대회	국기원	
15	11	29~30	전국 심판위원 강습	"	

그리고 협회가 마련하고 있는 **重要事業**을 살펴보면 그 첫번째로 **海外태권도 사범파견**이 있다. 本報에 실린바와 같이 김 용호사범이 이 政策의 一環으로 임무를 띠고 말레이시아로 출발한 바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三個月에 한번씩 年四回の 파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임원과 선수로 구성된 시범단을 海外로 파견하여 **世界跆拳道聯盟의 會長團**으로서 **海外弘報活動**과 태권도 土着化에 能動的으로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업운구사무총장이 밝힌바에 依하면 『**過去の 消極的이고 지엽적인 태권도 보급을 올래에는 더욱 적극적인 이고 능동적인 위치로 轉換할 一次年度가 될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하나의 **重點事業**은 **刊行物의 發行**으로서 지난해 「태권도 교본」의 發刊에 이어 올해에는 「**英文태권도 교본**」과 年四回 豫定の 태권도誌發刊이다.

跆拳道誌 編輯室에서는 「지난 十號의 傳統과 經綸을 바탕으로 하여 이제 國內跆拳道人뿐 아니라 **世界跆拳道人을 意識하고 一般人들도 興味있게 읽을 수 있는** 잡

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全태권도인이 참여하는** 여러본의 雜誌를 만들것」이라고 한다.

技術審議會에서는 跆拳道敎本の 英文版發刊과 海外用跆拳道잡지를 發刊하여 **世界스포츠化의 박차에 차질이 없도록** 刊本の 준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국내태권도의 實質向上과 전면확대를 위한 우수선수 장학금지급도 적극 추진할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國技院의 重要事業**은 內實의 해를 맞이하여 理論體系의 定立과 이의 전파를 위한 상설 태권도 시범단을 구성하여 상주하게 하고 各種태권도 시범에 임하기로 했다. 물론 이번 사업들을 뒷받침할 모든 간행물을 發刊하여 各계에 배포할 계획도 수립되어 있으며 중앙도장으로서의 국기원에 수련부를 설치하고 기술향상에 주력할것도 급근도 중요사업계획의 하나이다.

그리고 협회가 주관하는 해의 순회교육과 시범에 차질이 없도록 刊本の 體제를 갖출것이며 해외에 지역별 승단대회를 개최하면서 통일된 세계 경기규정과 심판규정 및 국기원 승단심사규정의 土着化를 꾀하고 있다.

◇ 원 고 모 집 ◇

一九七四年 新春을 맞이하여 跆拳道家族의 健勝을 祈합니다.

금번 跆拳道誌의 編輯室에서는 여러분의 雜誌를 만들기위해서 原稿募集을 實施합니다.

一種目, 7. 理論部問(跆拳道의 發展을 期할 수 있는 內容)

2. 隨筆, 詩, 修練記, 단화

一方法, 200字 원고지 13枚單位로 26枚, 39枚等

一보내실곳, 서울 特別市中區 무교동 1번지 대한태권도협회 편집실 귀하.



各館市道支部 및 各聯盟 實務者會議

지난번 世界跆拳道聯盟의 創設과 世界大會를 成功裡에 마친 韓國跆拳道는 세계 태권도
의 宗主國으로서 名實相符한 內實을 期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國內의
로 總體의인 단결이 요구되는 때라 하겠다. 모처럼 이룩한 世界 태권
도의 進出과 土着化는 곧 國內外 全跆拳道人의 단합으로서만
유지 可能하다고 볼 때 이번의 자관, 각시도지부와
聯盟의 實務者會議는 時機를 얻은 것이며 이
會議의 結實도 여김없이 堅우어져야만
할 것이다.(編輯室註)

會議場素描

1974年 2月 16日 本聯盟이 처음으로 開辦한 자관과
市道支部 및 各聯盟 실무자회의가 大韓體育會 제1회
의실에서 실무자급 21名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의욕에 찬 태권도인들의 기대에 부응 가운데 열린 회
의에서 金雲龍會長은 개회사를 통해 『未來의 한국태권
도 發展을 꾀어준 여러분들의 노고야말로 來日의 大業
을 위한 礎石이 될것인즉 여러분들이 創意的이고 能動
的인 位置에서 스스로의 맡은바 임무를 誠實히 수행함
으로서 우리의 目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는 이미 묵묵히 실천함으로써 全跆拳道人이 꿈에 그리
던 國技院을 完成했으며 그 위용은 결코 어느 一個人의
힘이 아니라 全태권도인의 一致團結한 努力의 結晶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世界聯盟을 創設
하고 世界大會를 열었으며 世界人들은 우리를 注目했고
드디어 지지했던 것입니다. 우리 스포츠史에 유례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일들을 추진시킨 전체 태권
도인은 이제 더욱 合心하고 단결하여 世界人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고 宗主國이라는 긍지를 헛되이 하지 않
기 위해서 여러분의 의욕적이고 긍정적인 노력이 倍加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鄭윤규 사무총장은 『각市道, 支部와 모든 聯盟
과 館에서는 관련 태권도인을 총망라하여 오직 「한국
태권도」 아래 一體感으로 合心하여 일사분란한 體制
아래 活動하여야 할 것이며 이제 世界에 土着하는 태
권도라는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無限한 自己發展, 資
質向上에 힘쓰도록 노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활발한 의견교환과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강
원식 사무차장으로부터 시달된 中央協會의 指示事項과
各代議員들의 전의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中央協會의 指示事項

가. 제 장부 및 서류를 철저히 비치할 것.

- (1) 각종 규정철
- (2) 각종 회의록철
- (3) 행사일시철
- (4) 임원명부(별지 3호 양식)
- (5) 임원이력서철
- (6) 직인날인부(별지 4호 양식)
- (7) 산하도장(학교)현황(별지 5호 양식)
- (8) 현금출납부(별지 6호 양식)
- (9) 비품대장(별지 7호 양식)
- (10)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8호, 9호 양식)
- (11) 유단자 등록대장(별지 10호 양식)
- (12) 각종 자격증 등록대장(별지 11호 양식)

나. 정기총회 결과보고

-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 실시
- (2) 2월 10일 이내 사업계획서 수지결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수지결산서를 제출.
- (3) 임원개선이 있을 때는 신 임원명단을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무실 이전보고

라. 각종행사 실시보고

각종 행사 및 대회실시 할 경우 15일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료 7일 이내에 결과보고 하여야 한다.

마. 직인 및 계인 등록 비치

소정의 직인과 계인이 없는 공문서는 일체 접수하지 않는다.

직인 : 정방형 가로 2.4센치 세로 2.4센치 한글

계인 : 타원형 가로 1.4센치 세로 3.6센치

바. 문서규정

- (1) 용지의 규격 한국공인규격 B5
- (2) 문서용어 한글(모아쓰기 풀어쓰기)

사. 심사업무 철저 및 계획수립

심사업무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심사일시 1개월전에 본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아. 행정지도 감사실시

자. 각종보고서 제출 기일 엄수

이상과 같은 示達事項이 傳해진 후 討議된 지방시도지부 임원들이 중앙협회에 提出한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의사항

1. 지도자 교육을 각 시도 지부에서 집행할 경우 인원 100명 이상을 縮少하여 50명 이상으로 할 수 있을 것.
2. 중, 고 및 대학 교과 과정에도 태권도 과목 삽입을 우선해 줄 것.
3. 태권도지 대상 독자가 국민학교생이 많은 것을 고려 쉬운말로 풀어쓰고 한글을 많이 써 줄 것.
4. 소년부 승단에 대하여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上限線을 2단으로 제한한 것.
5. 실무자회를 년 4회 걸쳐 실시할 것.
6. 선수등록에 대하여 시도지부와 연방간에 관한 규정 요청 等.

실무자 회의는 다각적인 방법과 具體的인 見地에서 진지한 토의가 오고갔다. 이 會議은 特別 中央과 地方의 行政一元化와 기반없는 의견교환이 이루어진 것이 큰 수확이었으며 이런 회의가 끊임없이 지속되어 全國의 태권도인이 一心 단결하여 內的 단합을 모색하여 世界진출의 기틀을 確固히 하는에 기여하는바 크다고 하겠다.



심사신청서 기재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적과 현주소 성명은 한자(漢字)로 정확하게 기재할 것.
2. 증명판 사진 3매를 첨부할 것.
3. 소속 관, 중앙 본 관장의 추천서를 받을 것.
4. 2단 이상 응심자는 협회 발행 단증 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것.

이상 4항목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았을 때는 이유를 불문하고 일체 심사원서를 접수치 않음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지난해 世界跆拳道聯盟이 韓國에서 結成됨으로 그동안 海外에서 피땀
흘린 사범들은 보람을 느끼고 더욱 분발하여 새삼 코리야의 태권
이라는 背持를 키워야 하겠다. 宗主國으로서 韓國의 跆拳道
는 더욱 努力하고 꾸준히 世界에 뻗어가서 궁극적으로
이를 土着化 시켜야 하겠다. 이번號에서는 全美國人
을 놀라게 한 靑마 跆拳道使節과 海外에 進出하는
跆拳道人들을 紹介해 본다.(編輯室註)

美國에 『跆拳道韓國』의 이미지 심고온 靑마 태권도 시범단 “코리야 · 리틀 · 트레저즈”

검은머를 허리에 맨 15명
의 한국 어린이 태권도 시범
단이 미국에 선풍적인 태권
도 한국의 이미지를 심고 돌아
왔다.

한국문화회관 초청으로 로
스앤젤리스 등 7개 도시를
돌면서 24종목의 시범 경기
를 보였는데 20여회의 경기
때마다 <원더풀 코리어>를
외친 관중에게 철저히 한국
의 국기 태권도를 재인식 시
켜준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시범단원 중에는 봄에 국
민학교에 입학한 6세 짜리 이
진양이 끼어있어 화제를 모
았는데 그의 <겨루기>는 관
중을 매료시켰다고 한다.

이들 15명의 靑마들은 장
동식 의원의 인솔아래 지난 1월 18일 로스앤젤리스 시
의회 체육관에서 시범 경기를 가진 것을 시초로 1시간
30분간의 묘기를 보여 주었다.

「케네스 한 로스앤젤리스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靑마
무도 사절단을 격찬하고 이들에게 일일히 캘리포니아 주
기를 선물하였으며 빅토리 국민학교를 방문 3백여 어
린이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운 친교를 더했으며 태권도



시범을 보여 그곳 어린이들
을 놀라게 했다.

1월 21일 하오 로스앤젤리스
배렌토 주니어 하이스쿨
강당에서 열린 시범에는 6백
여 중학생들이 참관했는데
10살짜리 靑마들이 교사리
손으로 기와와 송판을 격파
할 때는 모두 탄성을 울리며
<코리야 리틀 트레저즈>를
격찬했다.

다시 26일 하오 7시 허리
웃 고등학교 대강당에서 갖
은 첫 공식 시범 경기때에는
1천 6백석의 좌석이 모자라
서 서까지 관람하는 미국인들
에게 천진스런 이 靑마들은
그들의 묘기로 담배하기도
했다.

로스앤젤리스 타임즈“지는 이” 경기전인 25일 자 조간
신문에서 6살 靑마 이 진양과 여 덕수(8세)군의 대련
하는 사진을 크게 게재하고 태권도와 가라테의 차이를
설명하고 태권도는 자기방어 기술이외에도 자기수련에
적합한 무술이라고 극찬했다.

가라테가 손만을 쓰는 무도라면 한국의 고유 무도
태권도는 손 외에 발, 그리고 정신력이 합쳐진 것이라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먼저 태권도의 품위가 높은 것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고 있었다.

자 방송과 TV에선 연일 이들의 묘기를 방송보도하었는데 민간외교의 기수들이라고 해서 교포들에게도 큰 감명을 주었다.

이 꼬마 민간외교 사절인 무도사절단들은 무술시범을 통해 미국에 한국의 <얼>을 심어 주었고 또 그들에게 교유의 태권도를 익혀 주었다. 또한 미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독자층을 확보한 스포츠 전문지 <블랙벨트>에서도 이 꼬마 태권도 시범단들의 모습을 게재하고 태권도의 특성과 배경을 해설했다.

또한 이들은 LACC강당에서 6백여명의 대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시범경기를 통해 도수격과 품새 등을 펴보여 놀라움과 탄성으로 완전히 장내를 메로시켰는데 키가 큰 대학생들이 경기후 물러들어 꼬마들에게 악수를 자청하는 장면은 너무나 아이러니컬 하기도 보였다.

그런데 이번에 다녀온 꼬마 시범단의 임원및 선수명단은 다음과 같다.

□ 단장·장 동식 □ 부단장·박 재삼 □ 매니저·이강일 □ 홍보·김 현국 □ 코우치·이 규정 □ 선수·이진(6세) 조 현영(7세) 최 병재(8세) 여 덕수(8세) 정 근호(9세) 이 우일(10세) 이 동수(10세) 이 준호(10세) 조 호영(11세) 이 범영(10세) 박 민근(10세) 송 근형(11세) 황 두성(11세) 한 부덕(12세) 박 호영(12세) 등이다.

이들중 특히 미취학 아동이었던 이 진양은 <겨우기>를, 서울 충무국민학교 6년생이었던 황 두성군은 <송판 격파>를, 잘하며 모두 1가지 이상의 특기가 있다. 또 기와 7장을 포개 놓고 조그마한 주먹으로 거뜬히 깨뜨리는 놀라운 실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시범경기 때마다, 이들의 실력은 늘어가는 느낌을 받을만큼 진지한 모습엔 모두 감동치 않을 수 없었다고.

제복인 단원복을 입고 디즈니랜드를 관광하거나 공식 방문 또는 오찬의 초청 때에는 얼마나 순진하고 귀여웠던지 감히 그런 놀랄만한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린이 바로 그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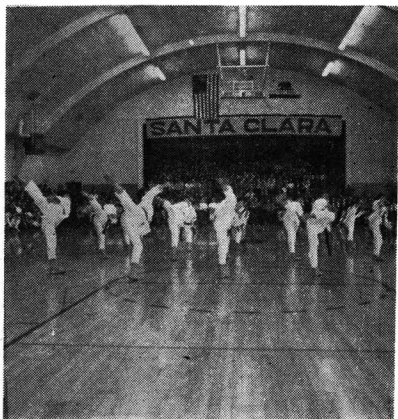
그러나 일단 흰 도복에 검은 띠를 매고 나서면 어디시 그런 힘과 용기가 솟는지 의아할 정도로 강한 인내

력을 보여 주었다.

이 꼬마 태권도 시범단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보살피는 분은 「필립 안」씨.

그의 정성도 대단했다. 어쨌든 많은 성과와 태권도 이미지를 미국에 심고는 꼬마들의 미국행 길은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 지난 2월 16일 8시 로스앤젤리스 스포츠 아레나에서 열린 중앙무술 엑스포에도 출연, 한국의 국기 태권도의 진수를 펴보였는데 미국에 태권도 붐을 재차일으켜 주고 온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듯. 귀국예정일이 훨씬 지났으나 각처에서 시범을 요구하는 청탁이 쇄도하므로 다소 귀국이 늦어질 것으로 보아 과연 국기태권도의 위력은 측정되고도 남음이 있는 듯 하다.

계속 이런 시범단을 파견, 새로운 묘기와 정신으로 세계 속에 태권 한국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샌타 클라라에서 시범을 보이는 "한국의 보배"들

뻗어가는 工業立國
國威宣揚 韓國跆拳道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코리안 리틀 트레저스) 시범일정표

- 1) 74. 1. 18. 로스엔젤리스 시의회
- 2) 74. 1. 18. 캘리포니아 카운티
- 3) 74. 1. 20. 로스엔젤리스 흑인학교
- 4) 74. 1. 23. 베렌도 하이스쿨
- 5) 74. 1. 24. 버논시 빅토리 국민학교
- 6) 74. 1. 25. 채널 11텔레비전방송 녹화
- 7) 74. 1. 26. 할리우드 하이스쿨
- 8) 74. 1. 28. 스탠다드 클라라 하이스쿨 체육관지
- 9) 74. 2. 2. 블랙벨트(세계적인 스포츠전문잡)

- 10) 74. 2. 1. 노스 버몬, 프레스 클럽
- 11) 74. 2. 1. 채널 5텔레비전, 오후 2시의 방영
- 12) 74. 2. 1. 채널 13텔레비전, 특집방송
- 13) 74. 2. 3. L, A, C, C 장당
- 14) 74. 2. 6. 샌프랜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강당에서 대시범
- 15) 74. 2. 12. 채널 5텔레비전, 30분간 특집방송
- 16) 74. 2. 13. 로스엔젤리스 시경찰국 및 다운타운
- 17) 74. 2. 14. 오브렌드 시티
- 18) 74. 2. 15. 알로하 스쿨
- 19) 74. 2. 16. 엑스포 74미전국체육대회 경기장에서 시범
- 20) 74. 2. 17. 컬버시티

<Republic of China>

自由中國 軍官學校에

노효영 사범 敎官으로 취임……

韓國의 跆拳道가 中國傳來의 武術을 능가하는 優秀性이 여러차례의 努力으로 中國에 알려진지 數年 昨年 世界跆拳道選手權大會에서 中國은 銅메달에 入賞하는 榮예를 안았다.

우리나라의 安保體育에 해당하는 自由中國의 國防體育은 中國의 陸軍訓練所長 中將 袁國徵을 跆拳道協會會長으로 추대한것만 보아도 그 熱을 可히 짐작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士官學校에 해당하는 中國의 軍官學校는 이미 陸軍에 韓國敎官을 임명했고 이번에는 노효영 (7段)을 招請하여 海軍 軍官學校의 敎官으로 임명했다.

本土회복을 꾸준히 꾀하고 있는 自由中國의 國防體育의 要체를 占하고 있는 中國의 간성들에게 노효영 사범의 努力이 結實하여 自由友邦의 國防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효영 敎官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Malaysia> 말레이시아에 파견되는 金容好 사범

—統一된 품세지도와 승단심사차—

지난해 結成된 世界跆拳道聯盟과 世界跆拳道大會의 結果 한국은 이제 宗主國으로서 世界의 태권도를 主導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난 67년부터 70년까지 월남에서 그리고 72년에는 이란에 파견되어 태권사범으로 名譽를 얻은 金容好(1942年生, 韓國公認6段)이 이번 金雲龍 協會會長의 추천을 얻어 말레이시아에 파견된다.

現地 말레이시아는 한국태권도인들의 피어린 노력으로 태권도열을 심은지 數年——드디어 지난해에는 그를 스스로 선수단을 이끌고 世婦大會에 참가하러 서울을 방문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金容好 사범은 2月 22日 空路로 出國하여 四週豫定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처음 2週間은 한국에서 制定하여 世界의으로 統一된 경기규칙에 의한 승단심사를 하여 이 경기규칙을 더욱 공고히하며 더욱 確實히 傳受



시키고 다음 2週 동안은 말레이시아에 散在하고 있는 16個所의 태권도장 指導者들에게 世界共通을 이룬 품세를 교육시켜 이의 正確한 응용을 지도할 예정으로있다.

이번 그의 파견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우리손으로 制定하고 統一을 본 體系化된 태권도를 차별로 世界에 土着化시키는 作業의 시초라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이것이 말레이시아의 초청과 한국태권도 협회의 협조로 이루어진

것은 世界태권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며 또 주목 이번 지도교육이 좋은 결과를 얻어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3個月에 한 번씩의 交流교육의 초석이 되고 나아가서는 제1회 아시아 대회에 對稱해서 말레이시아의 기술향상을 이룩하는데 공헌할 수 있기 바라지지 않는다.

<U.S.A> 大望을 품고 美國으로 떠나는 金鍾允 師範

—로스안젤레스에 民族魂과 跆拳道學校創設차—

成均館大學 英文科에 在學中 跆拳道를 始作한 金鍾允(6段 1935年生)씨는 오늘날까지 江原道跆拳道發展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江原道에 청무관을 이룩한지 15年 이제에는 8개의 지관으로 擴大해가면서 技術의인 問題뿐만 아니라 科學의인 醫學의인 側面에서 跆拳道가 人體에 미치는 影響을 研究하기도했다. 그는 스스로 45回 全國體育大會로 부터 3年동안 계속 강연도대표(해비급)로 전국대회에 출전 우승을 거듭해 오면서 앞으로 태권지도에 손색이 없도록 科學化시키기를 열원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努力이 헛되지 않아 그의 제자들을 통해 金사범의 이야기가 美國에 傳해지고 그는 드디어 3月 22日 로스안젤레스로 떠나게 되었다.

『제가 跆拳道發展에 기여한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만 지난번 國技院이 完成되었을때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읍니다. 그것은 우리民族의 상징이며 수련장이요 또 民族魂이 깃든 곳입니다. 이어 世界聯盟이 결성되고



우리의 규칙과 품세를 가지고 世界大會까지 치렀으니 이제까지 방관만 하고 있던 저도 世界的인 태권도 土着의 일을 담당하겠다고 느끼게 되었읍니다.』 김사범은 渡美계획을 決心하게 된 동기를 피력하면서 『로스안젤레스에는 現在約 10萬에 가까운 교포가 살고 있다고推定된답니다. 美國最初의 移民에도 敎會와 學校를 지었고 中國人도 學校를 지읍니다. 그들이 學校가 없이 위축

된다는것은 말이 아닙니다. 이번엔 開拓精神과 外國人들에 비해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自信感을 심어 주기 위해서 꼭 跆拳道學校를 設立하고 오겠읍니다. 百折不撓과 精神一到何事不成의 태권도 정신으로 반드시 이것을 이루고 돌아오겠읍니다.』 하면서 굳은 決心을 다짐했다. 그는 이 태권도를 품세와 격파 그리고 겨루기와 科學的인 說明을 곁들이면서 궁극적으로는 民族魂을 일깨우는 精神面에 歸一시키고자 하는지 같다. 國內外情勢가 民族의 總和를 추구하는 이때 金鍾允 사범의 跆拳道열이 길이 로스안젤레스에 土着하기를 빈다.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Deutschland> 韓國의 文化와 體育를 독일 에

—西獨 퀴팅겐州 자아르·란트로 떠나는 朴吉道 師範—

이번 3월 17일 朴吉道(1941年生 四段) 師範이 西獨 퀴팅겐州의 자아르·란트로 있는 州立大學에서 태권도 시연(試演)과 定規강의를 위해 출국한다.

그의 實兄인 박동표씨는 이곳 대학가에 「한국의 문화와 체육」이라는 사단법인체인 研究所를 갖고 이곳에서 話題를 일으키고 있는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同大學에서 宗教哲學을 연구하면서 10년동안 이 사업을 계속해온 박씨는 西獨에 팡부로 가있는 有段者들과 其他 師範들을 코치로하여 草創期の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가장 큰 애로는 품새와 경기규칙이 統一되어 있지 않고 그 體系가 없는 것이었다 한다.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은 이곳 同好人들에게 이런 상태로 교육을 시키기 어려운 것을 깨달았을 때 이무길 사범의 도움



을 얻어 어느 정도 기틀을 잡을 수 있었다. 現在는 市民과 어린이 뿐 아니라 大學內에 태권도部가 생기고 그중 대학내의 유단자가 75명에 단원은 270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특히 작년 세계연맹이 결성되고 모든 태권이 체계화되어 품새와 규칙이 통일되자 이런 몸을 타고 이곳의 태권열은 더욱 가속하고 있다.

이에 해당당국은 「동기학기」(Winter Semester)에 태권도를 정식科目으로 채택하고 그 강사를 한국에서 초빙하게끔 된 것이다.

독일의 來日을 접어칠 젊은이들이 한국 태권도를 익히고 수련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차사범의 노력이 이곳에서 더욱 빛나기를 바란다.

<Europe>

스 페 인 消息

—「마드리드」에서 윤여봉 師範—



유럽의 南端—關牛와 플라멩고의 觀光國으로 더욱 알려진 스페인의 소식이 전집실에 들어왔다. 現地에서 활약하고 있는 윤여봉사범의 消息을 原文引用으로 그대로 실어본다.

「.....현재 스페인에는 約 15명의 한국사범들이 활약하고 있고 각 사범님들이 自營하고 있는 도장도 다섯 곳이나 됩니다. 또한 이에 맞서 日本人 가라테 選手

들도 이곳에 먼저 발을 디디고 2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日本人들도 눈에 불을 켜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곳에 먼저오신 선배여러분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이들을 실력으로 제압하여 이제 日本人도장은 텅텅비고 반대로 한국태권사범은 많은 학생으로 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 世界聯盟의 宗主國이 된 긍지를 갖고 우리는 더욱 분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온지 2년 세곳의 도장을 순회 지도하고 있으며 250명의 제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제 흥미를 끄는 것은 군인들로 구성된 50여명의 단원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군인부대에 태권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해군부대의 요청이 있으나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군인들이 화랑의 후예에게 태권도를 배우다는 것이 저를 흐뭇하게 합니다.

이곳은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한국전하들이 더욱 진출하여 이곳의 한국 태권도열을 더욱 고조시켰으면 합니다.」

스페인에서 윤 여봉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Mexico)

멕시코 태권도 비약적 發展

멕시코 스포츠 專門紙

태권도의 “비약적 보급 발전” 激讚

멕시코시티에서 발행 部數가 가장 많은 스포츠전문지 “오바시네스”(El Obrero)는 지난 1월 26일자 보도에서 25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된 제2회 전국 태권도大會기사를 다브로이드판 全面에 “규율과 武道의 象徵” “비약적인 보급 發展에 敬탄不禁”이라는 副題를 달아 경기 사진과 함께 크게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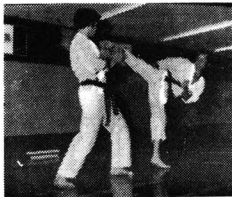
하루 발행부수 30만부가 넘는 멕시코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 종합전문지인 “오바시네스”의 “태권도대회”에 관한 보도내용을 간추려 옮겨 본다.

“500여 선수가 참가, 묘기에 박수 갈채”

「제2회 전국 태권도 대회」가 1월 25일 “환탈라·바테라” 올림픽 경기장에서 중앙도장을 비롯해서 전국 20개 지관 500여 선수와 “호세·갈시아·세르반테스” 멕시코 체육회會長과 이창희 멕시코주재 韓國 大使, 그리고 많은 내외 귀빈이 자리를 메운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첫날인 25일에는 유년부, 소년부와 성인부의 各 別 예선대회가 열렸는데 선수들의 날렵한 몸놀림과 계속되는 묘기에 체육회 인사들과 관중들은 열변 박수로 應答했다.

결승전 경기가 벌어진 26일에는 전날의 예선전과는



Mexico신문 “오바시네스”에 실린 경기 광경

달리 “벽돌깨기”, “관자깨기” 등 神技스런 경기를 보여줘 관중들의 갈채를 받았다.

멕시코시티에 있는 “중앙道場”과 메리따州 푸에블라州 등 地方州에 있는 20개 支館에서 참가한 500여 선수들 가운데는 73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 등 각종 태권도 대회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많아 경기의 비중을 더했다.

일본 武術인 “가라테” 보다 10년늦게 보급된 태권도가 69년 처음으로 멕시코시티에 도입된지 5년이 채 못돼 태권人口 2천 5백명을 확보한 것은 경이적인 발전을 가져 온 것이야 하겠다. 태권도야말로 오늘의 경기에서도 보여 주었듯이 “규율과 武道의 상징”이라는 데 조금도 인색할 필요가 없겠다.

2일간 계속된 묘기연속의 경기로 태권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진 사람들 많겠지만, 가라테를 익혀 무술을 연마해 온 호세·캄피오 상공부장관은 이미 태권도가 처음 들어오던 69년 태권도로 전향 태권도 초단의 실력을 갖고 있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이상은 “오바시네스”紙에 보도된 멕시코 전국태권도大會에 관한 기사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中南美의 仙人掌같은 風土를 이겨낸 韓國跆拳道

—第一回 世界 跆拳道大會 멕시코 三位의 功로자—

·60년대부터 태권도의 해외 보급품이 일어나기 시작한 이후 미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감추어졌던 神秘的 무술”로 환영을 받아 크게 보급됐음은 태권도人 뿐만

아니라 一般國民들도 다 아는 일이다.

그러나 中南美의 멕시코에 그것도 해발 2천3백미터의 고원지대로 이곳에 처음 발을 들여 놓는 사람은 으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백 2,3일 앵기 마련이라는 멕시코에 태권도가 보급됐으리라고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서울에 열린 제 1회 세계태권도대회에서 下位를 못낸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3위 入賞을 했을 때 한국선수들은 물론 다른 외국선수들까지 놀라움을 표시한 바 있다.

文 사범이 처음 멕시코에 간 것은 68년도 12월말, X-Mas연말 연시 휴가로 온 세계가 술렁일 때 멕시코 시티 체육인들로부터 “태권도 시범 및 지도” 초청장을 받고 미국에서 함께 활약하던 황 작 사범과 도착했을 때다.

시범경기가 끝나자 멕시코 무술협회에서는 그 자리에서 멕시코에 머물면서 계속 지도해 줄것을 정식으로 요구해 왔다. 당시 휴스턴에서 크게 기만을 닦아 온 文 사범은 일단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계속되는 초청에 다음 해인 69년 5월에 멕시코에 도착, 오늘에 이른 것이다.

현제 멕시코시티 중심가인 “인수르 헨텐스”街 14층



오른쪽이 문 대원 사범

진물2층에 무덕관 “중앙도장”의 간판을 걸고 유단자와 초보자 500여 명을 지도하고 있는 文 사범은 멕시코 전국에 지관 20개를 갖고 있는데다 유단자만도 25명이 배출됐다는 것이다.

유단자들 가운데는 지금도 1주일에 3,4회씩 들러 수련을 하는 호세·캄피오 상공부장관을 비롯해서 고규판 리와 교사들이 10명이 넘는 데 현재 지

도 받고 있는 사람 가운데도 대통령 경호원 10명과 검찰청 경찰관 11명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T.V 여자아나운서는 자기의 세 딸을 중앙도장에 내보내고 있어 각계에서 골고루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라미 天國에 태권도의 우위를 떨치고 불을 일으킨 文 사범은 “그동안 고국에 있는 관장님이나 선배 동료들의 격려가 없었다면 나 혼자 힘으로는 지금같이 될 수 없었다”고 모든 공을 선배들에게 돌리면서 조상 傳來의 國技인 태권도의 적극적인 보급을 위해 국가에서 좀 더 뒷받침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CANADA)

캐나다에 土着하는 跆拳道

全 德 基 師 範



于先 그는 가까운 親衛들에게 맨·투·맨(對人)作戰으로 달려붙어 說得하고 話題를 삼고 實技를 보이면서 가르치기 始作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風土와 文化와 言語가 다른 異國에서 跆拳道를 普及한다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꾸준히 跆拳道의 優秀性을 굳게 믿고 오직 信念으로 밀고 나간 것이다. 오늘날에는 每日 修練하는 館員이 100餘名을 넘고 있고 이들이 밑알이 되어 캐나다의 跆拳道는 幾何급수적으로 늘어갈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다. 『技術面을 초월하여 跆拳道精神 教育을 이해하고 傳受할 유단자도 200餘名이나 배출했다』고 한다.

그의 忍耐가 世界跆拳道聯盟과 함께 더욱 공고해 지기를 빈다.

캐나다에 居留한지 10年——跆拳道를 普及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克己와 忍耐의 두가지가 이것을 이룬 唯一한 힘이었다.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U.S.A) how to save your neck and wallet.
Tae-kwon Do The martial art for New York Subways.

어떻게 당신의 목숨과 재산을 보호할 것인가?
뉴욕 地下鐵의 범죄를 극복할 武道 —태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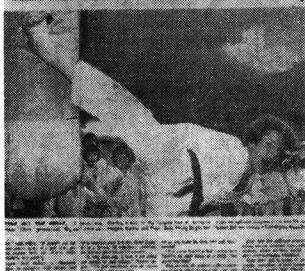
뉴욕으로부터 편집실에 現
地の 消息이 Herald紙와 同
封되어 傳해져 왔다.

『보내 주신 跆拳道誌 잘 받아
보았습니다. 祖國의 따뜻한 鄉土
와 跆拳道의 熱意를 보고 용기 배
배했습니다.

이번 이곳의 Herald紙에서 저
의 도장을 訪問하여 좋은 記事를
내 주신 신문을 보내드립니다. 현
재 저는 도장 한 군데와 두 곳의 Y.M.C.A.를 맡고 있
읍니다. 이곳 경찰 학교에서 지도를 요청하고 있으나
시간이 없습니다.

또 이번 4월 1일에는 이곳의 제一流 고등학교에 시
범을 나가는데 결과에 따라 정규과목에 채용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중에 있으며 대한
태권도의 전야다운게 最흥을 다하여 기어코 成功시키

Tae-Kwon Do—the
martial art for New York sub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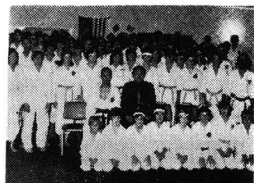
여기에는 原文 그
대로 그 一部를
紹介하여 海外에
진출하려는 意慾
을 가진 跆拳道人
의 참고로 삼고자
한다.

것입니다.끝으로 金 雲龍 會
長任을 비롯하여 고국의 선배 여러분
의 끊임없는 지도를 바랍니다.」

ARLINGTON HGTS.
TAEKWONDOCLUB
720 East Kingston Road
Arlington Heights, Illinois 60004

김 홍섭 드림

김 홍섭 사범이 보내온 Herald紙
의 記事는 2枚의 跆拳道시범사진을
포함한 우리 나라 신문 크기의 全
面을 태권도 기사로 채운 것인데



.....(前 略).....

On the pavement, where they had attacked, his two
buddies lay unconscious.

One had been knocked out by a single punch, the
other by a single punch, the other by a single kick.

The third fled, but not far, and was soon hauled
down by this mysterious man who made self-defense
artistic. Along with his buddies, the dazed trio was
held for New York police. For his work, Hong Sup
Kim received a citizens' citation from since resigned
New York City Mayor John Lndsiay. And he learned
something about American subways.

The story is true. It occurred less than two years
go when Hong Sup with was a stranger to this
country, Before Kim ever saw Arlington Heights
where he now teaches Korean Taekwondo He was not
looking for trouble that day; the subway creeps
certainly shouldn't have been looking for him.

The Korean born Mr. Kim, as his students reverently
address him, is 31 years old. He smiles easily,
speaks our American hodge-podge English better now
and physically, at least, is not distinctive from
Common Man.(中 略).....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But 19 years spent studying Tae-Kwon Do, has given him an uncommon status sixth degree black belt as sanction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est know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the Korea Tae-Kwon Do Association.

Translated, "Tae" becomes foot, "Kwon" is fist and "Do" means martial art. Thus, it is the "Way of the feet and fist," so to speak. Magic plays no p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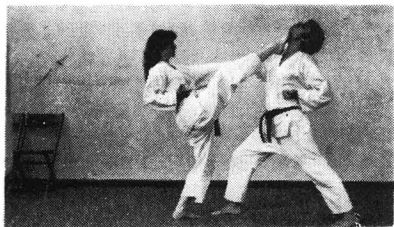
Kim began Tae-Kwon Do training as a 12-year-old. His first major title was gained at the 1962 World Championships held in Korea. Victories in the 1965 Far East Championships and 1967 Asian Championships followed.

His American immigration was arranged by the U.S. Army after Kim spent 18 months teaching Tae-Kwon Do to U.S. Special Forces troops during the vietnam war.

Kim's sixth degree black-belt is significant. As award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e is the highest ranking black belt in the midwest United St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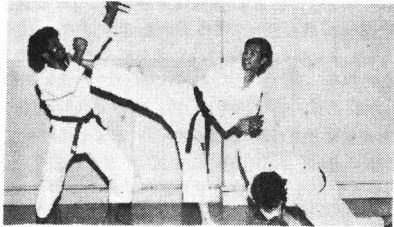
"The public is very unaware what a great difference there is in black belt degrees," said Bright. "It doesn't say the others aren't good. It's just that you know anyone with Mr. Kim's qualifications is very good.".....(下 略).....

(圖 報 消 息)



(U.S.A.) **Ohio**

김일주 사범은 美國 오하이오의 아브론(Abrons) 市에 김 일주 태권도학교(IL Joo Kim Tae Kwondo Institute)를 設立하고 맹활약중인데 사진은 女子 弟子 앞차기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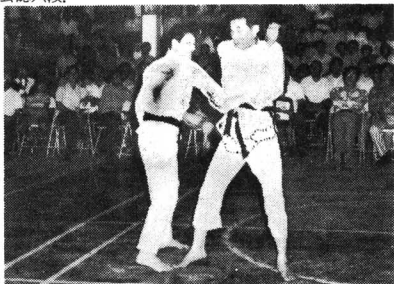
(U.S.A.) **New-York.**

이 문성 사범은 뉴욕에서 태권도 도장을 自營하면서 태권도의 무대를 더욱 넓혀가고 있다. 高麗大學出身, 公認六段.



(Phillippine) **Mannila**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박 용만 사범의 수련생들이 수련에 열중하고 있다. (1974. 1. 16촬영)



(Malaysia) **Johoreballrm, Johore**

양 우엽 사범이 말레이시아 조호바의 이 성수 사범과 Kuching Sarawak에서 시범을 보이고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U.S.A.) 「뉴욕」市立大 教授 趙時學師範

祖國 跆拳道 發展 爲한 誠金 쾌척

本誌(一九七三年 九月號)에 이미 紹介된 바 있는 뉴욕市立大「跆拳道」講師인 趙時學 師範이 跆拳道 發展에 誠金을 보내 온 美談 一題!

이미 紹介된 바와같이 趙師範은 一九六一年에 경영학 碩士課程을 마치고 뉴욕에 道場을 開設, 一九七〇년에는 政府로부터 國民勳章 석류장을 수여받았고, 一九七一年 武道권위誌「黑띠(Black Belt)」誌로부터 最優秀武道人으로 選定, 뉴욕州 교민회會長에 추대, 그리고 六個大의 강사로 있으면서 三卷의 跆拳道 著書 著述, 一九七三年에 뉴욕州立大學의 강사로 취임한 화려한 經歷을 갖고 있다.

昨年 八月 一時 歸國했을 때도 趙 師範은 『世界跆拳道 聯盟을 結成하고 그 會長國이 된 祖國에 자람을 느끼며 오직 金 雲龍會長의 熱과 誠에 敬意를 表할 뿐』이라면서 두번 다시 없을 跆拳道史 中興이 기회를 맞이하여 『金 雲龍 會長을 中心으로 全世界의 跆拳道人과 海外파견 師範은 使命感에 입각하여 協助하는 분위기를 造成』하기를 提言하면서 『金 雲龍會長의 궁극적인



希望이 태권도의 올림픽 가입에 있음을 周知하고 더욱 努力』해야 한다고 인터뷰했다.

이어서 그는 美國의 現地 事情을 素상히 傳하면서 가락테나 其他 호신술이나 투기에 비해 健全한 스포츠精神에 입각한 이 태권도의 올림픽 채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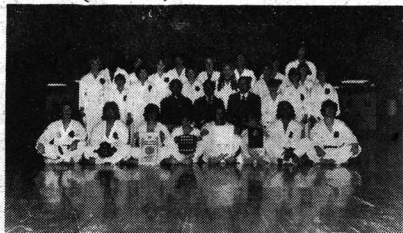
성은 높아가는 世界 태권도 인구와 인식도로 보아 극히 희망적이라는 見解를 表明하기도 했었다.

이번 그는 國技院의 運營과 世界聯盟의 설립살이 및 태권도 關係書籍과 本會의 諸경비를 감안할 때 金 雲龍 회장의 熱誠에 다시금 敬意를 禁치 못한단면서 于先 國技院 建立金으로 美貨2000弗을 傳해 왔다.

美國 跆拳道의 開拓者로서 跆拳道의 얼을 심고 있는 그의 努力이 이러한 열성을 더붙어 나타나는 것은 全國 태권도인에게 깊은 교훈을 남기는 美行이라 하 니할 수 없을 것이다. 엄문규 사무총장은 『이 誠金이 가장 뜻 깊게 쓰여지도록 할 것』이라고 그의 美德을 強調했다.

(U.S.A.)

Johnson 跆拳道 클럽



東洋에 對한 關心이 깊어가고 있는 美國에서는 尤 즈음 韓國의 工業立國과 비약적인 經濟成長에 힘입어 韓國跆拳道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

미쉬간(Michigan)州의 Johnson師範

이들 가운데는 특히 미모의 女性들과 少年 少女들이 끼여있는가하면 學界와 文化界人事에 이르기까지 여러동렬한 정도로 多樣하다.

이들은 날로 번잡해가는 美國社會에서 精神을 한 곳에 모으고 自己修練에 여념이 없는데 開館한지 8 年에 이룬 이 道場이 태극포지도 선명하게 하나의 跆拳道 土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大견스럽다.

Johnson's Korea Taekwondo Club
Willis, Michigan 48191 U.S.A.

東南亞巡訪記

—泰國 函—

金 東 明 (일요신문)

跆拳道는 世界의 스포츠가 됐다. 세계 40여 나라에 약 7백여 태권도 사범이 파견되어 국위를 빛내고 있다. 한국의 신비스런 護身스포츠인 태권도는 이제 세계 위에 힘있게 발을 딛고 일어선 것이다. 이것은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世界選手權대회를 계기로 더욱 탄탄하게 다져졌으며 실줄 모르는 발전의 기틀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물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태권도 보급에 크나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은 가슴 아픈 일이다. 이런 것은 동남아 태권도 취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졌다.

동남아뿐만 아니라 「유럽」과 美洲지역에 나가있는 태권도 사범들의 말도 같아 안타깝다.

떨어놓고 태권도를 예찬해온것도 아니다. 그동안 수십갈래로 分派되어온 채 生成해 온 과정이라든지 統合될때의 번거로웠던 내용도 있어 태권도의 복잡성이 언제 해결될 것인가 주목도 해왔다.

결과적으로 몇해 사이에 태권도는 세계진출 못지 않게 內實이 굳혀지고 있어 본래도에 들어갔다고 본다.

외국과 꽤기념치는 金雲龍회장을 중심으로한 강력한 행정체제는 오랫동안의 진통을 겪은것과는 달리들풍을 이르키며 치달고 있는 것으로 외국에 반영되고 있다.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嚴雲奎 총장의 치밀한 수완은 예정된 스케줄대로 밀고 나가 어느 경기종목의 추종도 허락치 않고 있음을 엿볼수 있다.

누가 뭐라해도 가슴을 채치고 『나는 한국 사람이다』라고 자부심을 갖게 된것도 태권도의 덕이라고 느꼈다. 적어도 외국에 수없이 많이 산재해있는 道場을 찾아가 보면 뼈마디까지 느낄수 있다.

크고 작고를 가릴것없이 태권도 도장에 들어서면 그 나라의 旗와 나란히 태극기가 걸려있음을 볼수 있다.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여기서도 한국의 얼이 태권도를 통해서 심어지고 있구나』하고 자세를 가다듬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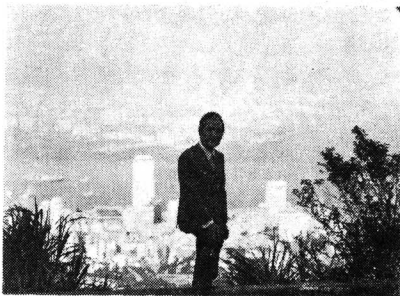
태권도 도장을 찾는 수련자들의 모습을 보고 다시한번 놀라게 한다.

세계젊은이들의 거의 모두가 그렇듯이 그들의 복장

이나 長髮의 모습은 얼굴을 정그리게 한다. 거의 어깨를 덮을 정도로 긴 머리라던가 戰後에 유행했던 나팔바지를 무색하는 통 넓은 바지를 보면 『저사람들이 어떻게 운동을 할까』하고 의심케 한다.

그러나 바깥 모습을 보고 그들을 가볍게 평가할순 없다. 복장의 장발은 그들 사회의 유행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것이라고 봐야된다.

태권도 도장에 들어서면 그들은 중앙에 걸려있는 국기를 향해 90도 敬禮를 한다. 道場의 선후배를 만나도 서로 인사를 한다. 연명의 차에 관계없이 선배에 대한 대접을 깎듯이 한다. 또 선배나 有段者들도 겸손한 모습으로 후배 수련자들을 맞고 있다.



(泰國에서 筆者)

師範에 대한 인사는 더욱 정중함을 볼 수 있다. 참으로 태권도의 위력이 놀랍다고 느껴진다.

泰國에서의 일이다.

40대가 넘는 후배수련자가 20대의 有段者에게 『예스 씨』(YES SIR)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물론 그것은 道場안에서의 일이었다.

나는 그말을 듣는 순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자유분방한 사회구조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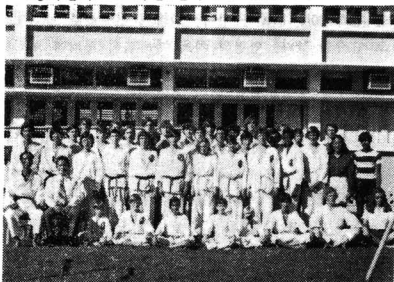
그들은 東方禮儀라던가 전통적으로 長幼有序의 생활을 모르고 자랐으며 또 그런 분위기속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年小者에게 경배를 한다는것은 생각도 못한 일이다. 아무런 태권도 도장이라도 오랫동안 젖어온 생활습관을 정반대의 위치로 바꿀수 있다는것은 대단한 정신수양이 뒤따르지 않고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뒤에 안 사실이지만 40대의 수련자는 현지에 나와있는 美軍某特殊部隊의 요극장교였으며 20대의 有段者は 某大學에 다니는 학생이었음을 알았을때 40대의 그 장교가 태권도라는 단순한 스포츠를 통해 얼마나 큰 감명을 받았길래 저렇게 됐을까 하고 되새기게 했다.

金明洙사범의 말을 사여 들으면 대단한것도 아닐것 같지만, 그렇게 머리를 때리는 감명을 받은것은 생후 처음 겪는 것이었다.

『나는 태권도를 종교로 살아 왔다. 더구나 한국과는 수만리의 거리가 떨어진 외국에 나와서 평범한 태권도 사범으로서 어정 어정 지낸다는것은 말도 안될 일이다. 흔히들 태권도 사범들은 태권도 기술만 가르키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먼저 그나라 국민성을 파악한뒤



(左端이 金明洙 師範)

그나라 국민에 알맞는 정신력 주입과 기술습득들을 병행 시켜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跆拳道는 살든지 모르지만 한국사범들은 발붙일 곳을 잃고 만다。」라고 의지를 보인다.

그의 말을 빌리면 『한사람이라도 좋다. 올바른 수련자를 길러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일부지역에서 한국사범들이 배척을 받고있음은 한국사범들의 잘못도 있을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물론 泰國에서 배출된 태권도 수련자들중 빗나간 사람이 없었던것은 아니지만 태권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량이 문제가 아니라 質이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경험을 털어놓으면서 어떤일이 있더라도 외국에 나가는 태권도 사범들은 그곳에 전래하여 내려오는 護身術과 다루지 말라는 것이다.

실력으로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敵으로 두려서

는 이로울게 없다는 것이다.

누구라도 같은 護身스포츠를 배울때는 보다 훌륭한것을 택할게 뻔하지만 그 사람들이 최고라고 알고있고 또 그것을 지켜온 사람들의 체면을 깎아 내리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인격과 체면을 존중해주면서 태권도의 實利를 어떻게 구할것인가를 연구해야된다고 그는 경험을 통해 말한다.

그가 泰國에 간지 얼마뒤의 일이었다. 태권도가 그곳에 上陸한 직후 道場을 차리자마자 대단한 인기를 끌게됐다. 외국의 호신스포츠가 그곳에 들어와 그렇게 인기를 모으리라곤 그 자신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렇게되자 金사범보다 약 10여년전부터 「방목」에 道場을 차리는 일본 「가라테」(空手道) 도장에 큰 타격을 주게됐다. 「가라테」를 배우던 수련자들이 자주 이탈하면서 태권도장에 문을 두들기게 됐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것은 미리 계산에 넣었던것도 아니며 그들 「가라테」수련자들을 유혹한것도 아니었다.

이렇게되코보니 일본 「가라테」사범이 金사범이 차리는 태권도장을 찾아왔다. 그리고 그럴수 있느냐고 시비를 걸어왔다. 한두명도 아니고 5, 6 명이나 패거리가 되어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그래도 참고 전후사정을 설명하여 자기와 수련자(가라테)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으나 막무간했다.

그러면서 태권도가 그렇게 뛰어나다면 對打(맞서 싸우는 것)를 하자고 서술이 쇠뿔때서 설쳤다. 이렇게 육신각진하게 되자 수련자 1백여명과 주위사람 3백여명이 어떻게될까하고 호기심을 갖고 金사범의 결정을 기다리는 형편이였다.

여기서 金사범은 중대한 판단을 내려야했다. 평소부터 「가라테」의 실력을 그렇게 두려워한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은 背水陣을 치고 덤벼드는 이성을 잃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다.

마음이 결정이되자 한결 몸값음이 가벼워졌다. 측석에서 對打는 시작됐다. 이렇게될줄 짐작했던지 그들은 일본 가라테 사범중에서 전강한 사람이 道服으로 金사범과 맞섰다.

결과는 뻔했다. 金사범이 도복의 매무시를 고치는 그 아래 일본 가라테 사범은 고통스런 표정을 지으면서 아직 일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되코보니 함께 왔던 일본사범들은 밀쫓해졌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주위사람들은 金사범에게 약속이나 한듯이 박수를 보

내왔다.

그러자 또 한명의 가라데 사범이 도전을 해왔으며 對打가 시작되지 불과 1분만에 똑같은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런 소문은 삽시간 사이에 「방콕」에 번졌다. 그도 그럴것이 「가라데」사범이 태권도 사범과 대결한다고 알려지자 金사범의 도장안에는 몇개 신문·방송의 체육기자들이 승부의 행방이 어떻게될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신문과 방송은 『跆拳道와 空手道の 대결에서 태권도가 KO승』을 거뒀다고 대서특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되자 金사범의 위치는 하루아침에 유명해졌으며 태권도장은 문전성시를 이루게됐다.

그러나 이런것은 편안하지만도 못했다.

태국의 국가처럼 되고있는 「타이·복싱」이 그를 괴롭혔다. 「타이복싱」선수가 개별적으로 찾아와 「누가 센지를 갈라보자」고 제의를 하는가하면 TV국에서도 태권도와 「타이복싱」을 대결시켜 보려고 온갖 「채널」을 통하여 밀려왔다.

그러나 아직껏 金사범은 「타이복싱」선수와 대결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지 주민의 감정을 자극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거나 지나 손해를 볼것은 태권도가 될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요 태권도사범의 성격은 과격하기만 하다. 金사범이 이진다고 치자. 그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보복을 해줄것이며 만일 그 보복이 두려워 진다면 지는 그 시간부터 태권도는 종말이되기 때문이다.

보는 사람에따라서 달리지 모르지만 「가라데」사범을 때려 눕힌 뒤 「타이복싱」과의 대결을 기피한것을 참으로 잘한 일이 아닐수 없다. 「가라데」에 이겨서 실력을 과시했다. 그것으로 만족할것이다. 「타이복싱」과 조우를 피하면서 그들의 위신을 세워주고 한편으로는 태권도 보급에 독을보면 쌍방이 모두 만족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태권도 사범들은 외국에 나가서도 존경과 신뢰를 받게된다. 조금만 분별있게 행동을 한다면 자신을 타탄한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있으며 따라서 「코리아」의 「이미지」를 분명하게 심을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태권도장 안에서 실시하는 각종 구경도 한국인으로 태어난 보람을 안겨준다.

『차렷』

『국기에 대해 경배』

『사범님께 경배』등등 모두다 한국말로 시작된다. 이것만이 아니다. 연습구령도 모두다 한국말로 한다.

跆拳道!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태권도야말로 한국「스포츠」의 「先頭者」임에 틀림없다. 한국의 자람이 아닐수 없다. 아직 한국은 선진대열에 끼울정도가 아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렇지 않은가? 뭐 뚜렷하게 자랑할만한게 없는 실정에서 태권도만이 40여나라에 진출, 한국의 빛을 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에너지파동이라는 거센 회오리바람이 일고 있다. 한국도 예외일순 없다. 그렇다고 產油國들이 선진국은 아니다. 그러면서 전세계를 에너지라는 단일 이슈로 묶을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두말할것 없이 賦存資源의 덕이다. 그 부존자원이 있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세계물가 인상의 고삐를 잡고 있듯이 한국이 자랑할게 있는가.

黃金이 쏟아져 나오지도 않으며 고추가 나오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東南亞 여러나라와 같이 각종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도 않으며 광활한 농토를 갖고 있지도 못하다.

國土의 대부분이 거의 쓸모없고 나무없는 돌산 뿐이다. 허울이 좋게 하늘이 맑고 春夏秋冬이 분명한 四季節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배부름수도 없으며 자랑일게 없다.

그렇다면 뭘이 자람이 될까.

태권도가 자람이다. 이것은 한국 스포츠의 자랑일뿐 아니라 신장하는 국력을 대변하는 국력을 대변하는 膠技의 위력이라고 보는게 좋을것 같다.

그리고 태권도는 한국 스포츠의 「파이어니어」로 봐도 좋을것 같다. 역사를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봐도 태권도처럼 외국에 나가서 남을 지도한 기록은 아직 없기 때문이다.

또 한국태권도의 앞날은 양망하기만 하다. 현재 40여개 나라에 태권도 사범이 나가서 보급을 해왔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것 같다. 그만큼 태권도는 호신 스포츠로서의 가치가 인정된 셈이다.

애국을 하는 길은 많다.

나라의 운명을 운영하는 정치, 나라의 살림살이를 틀어잡고 있는 경제가 있는가 하면 스포츠를 통해서 값진 인간의교를 건우는 것도 애국의 한 길이라고 볼때 태권도야말로 세계속에 한국을 심는 애국이 아닐수 없다.

태권도! 우리학교 사랑 승례 국민학교

「태권도는 그 기술보다 정신에 있다」고 文鎔孝 교장 선생님은 태권도를 학교 어린이들에게 장려하게된 동기를 말하고 있다. 72년 4월경 약 40여명의 어린이로 시작된 승례 국민학교 태권도부는 그동안 100여명의 유단자를 배출시켰고 지금은 매일 방과후 150명의 어린이가 운동장을 메워가며 태권도 수련에 열중하고 있다.

승례국민학교 태권도 수련의 많은 어린이의 참가는 교직원 선생님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매일과 같이 어린이들의 건강에 힘쓰고 계시는 이경범 선생님의 후원으로 태권도부가 매일 150여명의 수련생을 갖었다고 文昌南(5단) 사범은 말하고 있다.

태권도 수련중에는 가끔 교장선생님이 살펴보시며, 태권도는 우리나라가 자랑할만한 國技임에 우리학교 어린이는 강인한 체력과 굳센 의지를 길러 훌륭한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 어

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린이를 격려하여 주신다고 文昌南 사범은 말해 주었다.

「부지런히 일하고 서로 돕자」라는 교훈을 잘 지켜나가는 승례어린이를 지도하고 있는 시간이 제일 즐겁다고 지도사범은 말하고 있다.



겨울을 이겨내는 태권어린이

서울 전농 국민학교



잘 다듬어진 교정에서 석양빛을 받으며 태권도 어린이 유단자 50여명이 참바람을 안고 기합소리 드높게 수련에 여념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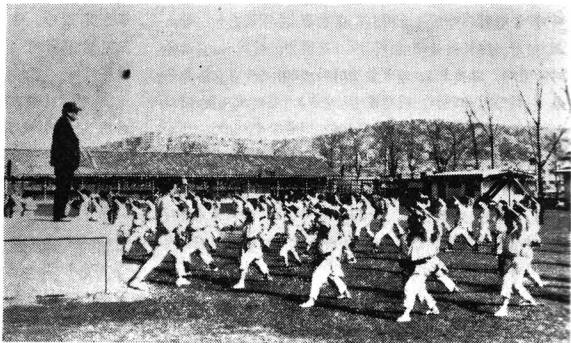
금 1월에 국민학교 태권도 연맹이 창

설되면서 초대회장으로, 추대된 양대석 교장선생님은 “전강은 만사에 근본이다”라는 기치아래 태권도 보급에 발벗고 나섰다.

태권도 수련을 시작한지 불과 2년만에 지금은 유급자만도 300명을 넘어 운동장이 협소한 정도라고 담당 홍진로 교사는 호뭇해 했다.

전농어린이는 각 학년별로 자유 학습일에 꼭 1시간씩 태권도 교육

을 받고 방과후 특별반을 두어 수련을 강화하고 있어 멀지않아 전교생이 태권도 수련을하여 나아가서는 전국 국민학교의 태권도 발전에 헌신 노력하겠다고 양대석 국민학교교연맹 회장은 기대에 가득차 있었다.



태권도를 교기로 대성 중학교



서울 갈현동 봉산 기슭에자리한 大成(대성) 중학교는 태권도를 교기로 삼고 다져온지 5년 一人一技 교육이라는 교육 이념에 따라 학교 설립당시부터 태권도를 교기로 선정하였다고 한다.

교장 강석규 선생님의 열성과 무도정신을 생활화하는 교육이념으로 졸업할 때는 모두가 초단 이상의 유단자로 졸업하게 되어 벌써 1회와 2, 3회 졸업생을 통해 450명의 유단자가 배출되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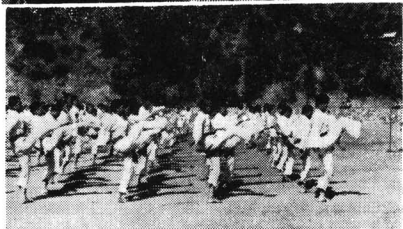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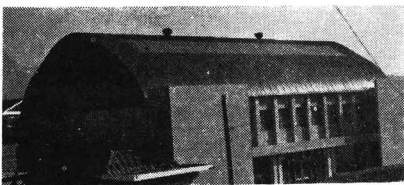
현재 학생수는 2,500명, 유단자가 174명, 그외에는 모두 3급이상자라 한다.

대성중학교에서는 태권도 활동을 통하여 강인한 무도정신과 정의감을 길러주기 때문에 외부에서 생각하기와는 달리 학생간의 싸움이 없어, 생활지도에도 편한 편이라면서 학부모에게서도 의젓하고 명랑해졌다는 찬사를 받고있다고 담장 사범들은 말하고 있다. 이번 강석규 교장께서는 전국 중, 고등학교 태권도연맹 부회장으로 피선되었으며 체육관도 건립되어 이제까지 맨발로 태권도 수련을 해오던 학생들에게 큰 기쁨을주고 있다.

대성중학교의 태권도 열은 지난 「제20회 서울 학도 체육대회에서 우승, 제22회 대회점 제2회 스포오즈스

년대회 서울시 예선대회에서는 8체급중 7체급에 출전 모두 입상하여 종합 1위를 차지하여 더욱 고조되었고 제8회 전국 중, 고, 대 개인선수권대회에 출전 4체급에 입상하는 등 화려한 전적을 자랑하고 있다.

맨발로 운동장에서 모래를 날리며 시합 겨루기를 해오던 학생들은 매미드 체육관의 건립과 더불어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면서 오늘날 武道精神이 具現에 現하고 있다.



산허리를 다듬어 태권도 수련 단국중학교

한남동산의 우거진 나무사이를 헤치며 약 100m가량 걸어 올라가면 태권도에 열중하는 중학생들을 볼 수 있다. 태권도 수련한 만한 장소를 찾아 공기 좋고 조용한 산 중턱을 50여명의 중학생이 다듬어 놓은 땅은 고무 게 다듬어지 맨발로 뛰어도 다치지 않게 돌하나없이 깨끗하다. 담당교사인 金直和 선생님은 학생들의 열성에 감복하였단면서 고등학교 2학년 이형관군이 비오는 날을 제치놓고 매일 중학생들을 기다리며 수련생들의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 중학생들은 방학중에도 꼭 15일은 이 야외도장을 찾아왔다고 하며 조그마게 다듬어놓은 수련장은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차차 넓어져서 지금은 30이명이 한꺼번에 시범을 연습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서울대학 태권도부

<사범 대학교 편>

서울대학교는 20개 단과대학에, 6개의 태권도 도장을 (공대 교양과정부 공용, 농대, 문리대, 법대, 사대, 상대) 가지고 있으며 100명의 유단자와 300명의 수련생을 확보하고 있어 대학태권도 인구의 저변확대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각 단과대학은 부장들이 모여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1969년부터는 해마다 총장배쟁탈 단과대학 대항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고 수시로 합동수련을 실시하여 기술향상과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태권도부

고 문: 정 범 모(사대학장)

지도교수: 노 회 덕(교양과정부교수)

각대학 태권도부

대 학 명	지 도 교 수	사	범
공 대	전 용 원	정	찬 모
교양 과정부	노 회 덕	정	찬 모
농 대	김 태 욱	김	태 욱
문 리 대	고 석 구	이	문 호
법 대	김 치 선	홍	정 표
사 대	임 번 장	정	찬 모
상 대	김 봉 호	정	홍

각 단과대학중 금번에는 1969년 이후 서울대학교 총장 배쟁탈 태권도 대회전승팀인 사범대학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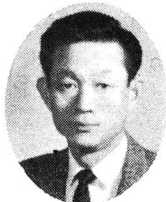


서울사대 태권도부 겨울방학중 계속 훈련에 참가한 부원

사범 대학

개교 이래 수많은 교육자를 배출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여기에는 진진한 정신과 강인한 체력으로 학문을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학교당국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태권도부가 년중무휴! 힘찬수련을 계속하고 있다.

태권도부가 창설되기는 20여년전 개교직후, 창설초기에는 유단자를 중심으로한 소수의 자치활동이었으나 그동안 10여차례의 연무시범과 끊임없는 수련이 계속되는 동안 내실을 다져 총장배 및 천선계임을 통하여 서울대학교를 대표하는 팀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1973년에 접어들어서는 1966년부터 사대의 태권도를 이끌어온 정찬모 사범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제2학기에는 정범모 학장이하 여러교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태권도부를 강화하고 250명의 전용도장을 마련하였으며 교양체육에서도 태권도를 수련할 수 있도록 체육과의 뒷받침을 받으므로써 70여명의 수련생이 일반장 지도교수와 정찬모 사범의 지도아래 내적충실과 대학태권도인의 자질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겨울 방학에는 20 여명의 수련생이 추위를 극복하고 수련하는 모습을 볼때 대학 태권도의 앞날에 밝은 전망이 기대된다.



서울사대 교문 정 범 모



지도사범 정 찬 모

自由中國 跆拳道聯盟 副會長 臺北市 市議會 議員

陳 良 光 氏

業務協議次 韓國을 訪問

自由中國 跆拳道聯盟 副理事長인 陳良光氏가 業務協議次 韓國을 訪問했다. 지난 三月初 來韓한 陳良光 氏는 지난해 世界跆拳道大會에 選手兩을 이끌고 서울에 와서 當三位에 入賞 스스로 受賞臺에 오른 榮光을 갓은바 있는데 五日 嚴雲奎事務總長의 案內를 받고 國技院을 돌아본 후 記者들과 만나 訪問目的을 說明했다.

現在 自由中國에는 昨年 世界大會 以後 跆拳道熱이 더욱 高潮되고 있는데 臺北市에만 約二十個所의 道場과 臺灣 全域의 約八十餘道場에서는 有段者 四十餘名을 包含한 四十萬跆拳道人이 修鍊에 熱을 올리고 있다.

有段者 가운데 最高段者는 年輪이 아직 짧아 四段에 머무르고 있으나 中증의 韓人은 尤르단에 師範으로 派遣되어 跆拳道普及에 力을 擔當하고 있다고 披露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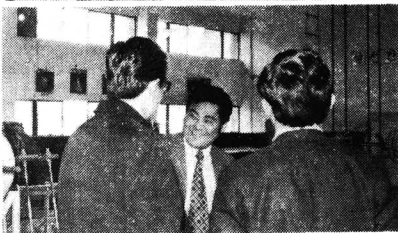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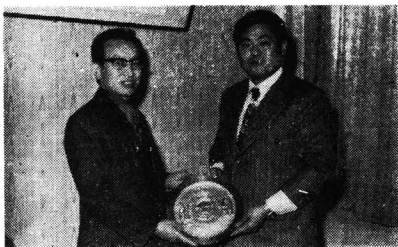
특히 本土를 其產治下에 두고 꾸준히 回復을 노리고 있는 自由中國은 陸軍訓練所司令官인 中將袁國徵을 跆拳道協會 會長으로 推대하고 國防體育으로서 跆拳道를 보급하고 있다. 특히 韓國師範을 敎官으로하여 陸軍軍官學校에 跆拳道場을 設置한 以來 이번에는 韓國의 李孝英 七段을 海軍 軍官學校에 敎官으로 이미부임 시켰다면서 兩國의 跆拳道友情을 강조했다.

또한 高潮되는 跆拳道熱은 少年層뿐 아니라 婦女子에게까지 번지고 있으며 지난 年末 跆拳道 강습을받으려온 中學校敎師들도 五百名이나 되었다. 이들이 各學校로 돌아가 跆拳道를 宣傳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陳良光副會長의 이번 訪韓目的은 昨년에 加入한 世界聯盟의 未備書類를 完備하여 世界聯盟加入節次를 完遂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會長國으로서 韓國이 中國 跆拳道協會에 積極적인 技術지원을 아끼지않도록 부탁했다.

그리고 이번 5월의 國際審判강습회와 7월에 있을 아시아 跆拳道大會를 謹하고 韓國의 施設과 現況을 미리 點檢하며 各國의 技術情報을 얻으려하는데 있다.

「아직 韓國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번 아시아 跆拳道大會의 目標은 二位입니다. 우리는 期必코 二位를 確保한 自身이 서 있습니다」하고 굳은 意志를 보였다.



現在는 臺灣體育會의 事務總長에 해당하는 幹事를 맡고 있으며 臺灣市議會議員을 겸하고 있는 陳副會長의 이번 訪韓目的 가운데 하나는 發展하는 自由中國의 跆拳道視察을 위해 會長國의 金雲龍會長과 嚴雲奎 事務總長의 招請을 正식으로 요청한 것.

이에 대해서 嚴雲奎事務總長은 「自由友邦의 發展하는 跆拳道를 격려하기 위해서 最善을 다해 應할것」이라고 答했으나 具體的인 日程이 協議된바 없다.

그는 또 서울特別市 體育會와 臺灣市體育會의 재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市體育會 백금봉 사무국장을 만나 協議하고 友好的인 對話를 나누었다.

끝으로 嚴雲奎事務總長은 今年 九月로 계획되고있는 跆拳道交流에 대해서 陳副會長에게 說明했는데 九月부터 約二個月에 걸쳐 國技院에서 一種의 跆拳道 留學을 實施할 것이라고 말했다.

4日 金雲龍會長 禮訪에 이어 五日 國技院訪問 6日 서울市體育會 사무국장을 방문한 陳副議長은 태농선수 奉 등 韓國의 體育施設을 더 돌아보고 十五 空路歸國한 豫定이다.

大韓體育會制定 1973年度 跆拳道部門 最優秀選手 김 철 환 選手

대한체육회가 毎年 各 경기단체 별로 選定하는 최우수선수의 今年 태권도부문에는 김철환(1954년12월 12日生)선수가 뽑혔다. 別表의 経력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화려하고 着實한 経程을 보인 弱冠 김선수는 忠北 堤川 出身. 부친 김주선씨와 모친 원 길여사의 5男1女中 4男으로 태어났다. 부친 김주선씨는 유도 유단자이시며 둘째형 김영환씨는 쌍용시멘트의 축구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스포츠家門에서 金選手는 자라났다.

김선수가 태권도에 뜻을 두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때로 부터 축구와 더불어 취미로 시작했다가 고등학교 입학할 계기로 國技인 태권도에 전념했다. 태권도 수련을 본격화한 지 3만인 지난 70年 11월의 전국개인선수권대회의 고등부 웰터급에서 첫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남모르는 노력을 계속한 끝에 71年 7월과 11월에 계속 우승함으로 자신을 갖게되었다 177cm의 身長과 68kg의 體重을 갖춘 理想的인 그의 體格은 유연한 허리와 잘 發達된 근육을 바탕으로 이미 천부적인 素質을 얻은데다가 굳힐 줄 모르는 精神力과 수련을 가미해서 오히려 이런 連勝은 이미 約束된것인지도 몰랐다. 주위에서는 이런 김선수의 초질을 더욱 發展시키고 視野를 넓혀주기 위해서 서울로 學校를 옮겨주기에 이르렀다. 특히 忠北支部의 정익진부회장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中央本



<경 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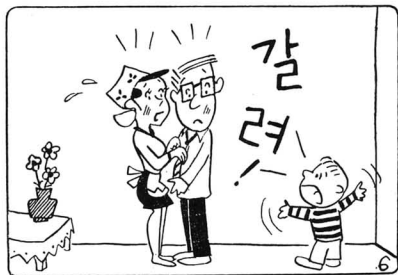
- <전국개인선수권대회>
- 1970년 11월 고등부 웰터급우승
- 1971년 7월 "
- 1972년 5월 "
- 1973년 11월 일반중기웰터급우승
- <우수선수선발대회>
- 1971년 11월 일반중기웰터급우승
- 1973년 11월 "
- <전국체육대회>
- 1973년 10월 일반중기부웰터급우승
-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발대회>
- 1973년 3월 중량급 선발
-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 1973년 5월 단체전 우승
- <대한체육회선정>
- 1973년도 태권도 우수선수수상

관에 입관할 수 있었고 이곳에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다. 71년까지의 주무기였던 열차기와 주먹치르기가 72년에는 앞차기를 추가시키게 되었고 73년도에는 그

의 主 공격무기가 된 뒤돌아열차기를 完全히 자기화하여 구사하게 된 것도 다 이런 뒷받침의 덕이었다. 완벽한 기술의 습득은 자신의 경기를 운명함에 있어 일거수일투족에 더욱 자신감을 불어넣고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내뿜는 정확한 공격은 불을 뿜듯 강한 것이 되었으며 수비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하고 민첩한 것이었다.

이런 그의 능력이 開花한것은 특히 지난해 世界跆拳道選手權大會였다. 그는 5월25일부터 27일까지 거행된 동 대회에서 날카롭고 정확하며 자신감넘치는 공격으로 시종 상대를 위압하면서 한국의 단체우승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관중들은 그의 묘기에 매혹되었으며 특히 外國人들은 '원더풀·코리아'를 외치면서 경기가 끝나자 그의 기술을 배우겠다고 물려싸기도 했다. 이제 20세로 곧 軍에 入隊할 豫定으로 있는 김철환선수는 끊임없는 努力과 精神의인 수도를 첨가한다면 한국태권도가 기대할 유망주임에 틀림없다.

그는 수상소감을 통해 『오늘의 저를 있게 해주신 회장님과 선배여러분 그리고 부모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겨루기위주에서 벗어나 몸세와 격파에 더욱 重點을 두고 보다 精神面의 修養을 쌓아 수련과 기량이 조화를 이루는 태권도의 世界를 추구해 보겠습니다』하면서 굳게 입을 다물었다.





三千萬의跆拳道

李 政 吉

跆拳道는 祖上의 슬기와 얼이 담긴 古有의 民族武藝로 전승되어 온 文化遺産이다. 고구려 角氈塚, 舞踊塚 三室塚等의 벽화로부터 李祖 御定武藝圖譜通志에 이르러 그 역사는 태권도의 원형 그대로를 고증하여 주며 우리民族이 自己방위를 위한 본능적 闘技로서 先史時代에 發生하여 오늘의 跆拳道로 形成되었다고 본다.

1971년 1월 17일 김윤환회장께서 부임하시면서부터 태권도를 國技化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시고近代스포츠화하여 國內는 물론 全世界의으로 700여개의파견사범들이 태권도 보급을 통하여 國위선양에 앞장 서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은 모두가 국기태권도 종주국의 면모를 세우고 계속 유지하는 데 책임감을 갖고 한결같이 태권도 가족이 되어 내실에 찬 역군이 될 것을 제창하는 바이다.

태권도는 전신의 근육과 관절을 모두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종합운동으로서 계속적인 수련의 所産으로 不屈의 意志를 가지고 人格向上的인 길잡이로 삼아 價值創造를 指向하는데 特色이 있는만큼 人間에게는 內的 外的 環境의 질서와 기능의 균형을 보존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필요요소로서 하나의 人間을 다듬어 바르고 참된 인품을 만드는 根源이 되며 애국하는 길잡이가 된다. 따라서 歷史의인 배경으로나 민족이 處한 現實의 狀況으로서나 汎國民的體育로 底邊擴大가 이루어져야 하며 實質向上이 要求되는 바이다.

急變하는 生活에의 適應難과 機械化에 따른 人力利用의 減少와 勞動時間 短縮은 人間에게 餘暇時間을 均等히 나누어 주어 일손을 덜어주게 하고 있고 이에 따른 餘暇는 低質的인 商街娛樂를 恣意하게 하고 있는 形便이다. 이로 인한 體力減退와 身體偏重과 精神疾患의 急増 또한 道德의 破壞등들이 그의 產物이라 하겠다. 以上과 같은 健康障害와 精神病 誘發의 原因을 줄이고 社會惡習을 除去하며 風氣를 振作시켜 明朗하고 健全한 生活風土를 築으며 積極的으로 體力를 向上시켜 國力の 基를 만들고 協同力과 團合을 꾀하여 閉鎖과 實踐의 意志力을 가지는 알차고 剛健 國民으로 成長하기 위한 一環으로 國民 모두가 跆拳道家族이 되기를 再三提唱하는 바이다.

잠깐 한 가족이 집에 모여 여가시간을 즐긴다고 假

定해 보자. 萬一 돈을 걸고 투기놀음을 한다면 이것은 遊技의 가장 저급한 手段이다. 왜냐하면 머리골치만 아프고, 경제生活의 보조기구에 불과한 돈을 目的삼아 온 精力은 쏟고는 잃은 사람이나 뻔사람이나 다같이 찌뽕한 생각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유희가 運動(球技)을 통해 내기를 걸고 즐긴다고 보자. 어느곳인가 이런것을 수용할 場所를 전 유해야하고 거기서도 기구를 장만하고 또 기량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함께 즐길수도 없다. 마음가운데서 호쾌하게 뛰놀지 못하면 결코 유희하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열등의식과 정신적인 부담과 경제적인 피해까지 따르게 된다. 또 相對가 있어야 유희는 이루어지고 單獨으로는 곤란하다.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있는 유희는 次善策은 될 것이다.

그러나 周知하는 바와 같이 태권도는 時間과 場所를 가릴 필요가 없다. 가족이 모여서 생기는 잠! 아침의 起床이나 夕陽무렵—— 그리고 더욱 꼭 맑음이 必要없다. 月光아래서라도 좋다. 또한 空間이라야 보통 住宅의 마당이면足하고 또足하다.

이런 時間과 場所에 모여 온 家族이 精神을 한곳에 모으고 몇차례의 간단한 品새를 시행한다고 상상해 보라! 또한 毬마들의 고사리손이 겨루기를 하는 모습을 그려보라! 이 어이 호모하지 않겠는가?

萬一, 그가 獨身生活을 한다고 해도 그렇다. 골치아픈 틈을 타서 마당에나와 격파연습이나 品새로 한번 땀을 낸다. 精神面이나 肉體面의 效果는 상상에 맡긴다.

十餘年前, 라디오 체조라는 것이 있었는데 나는 당시금 三千萬의 跆拳道체조를 提唱한다. 全國民이 아침 일찍 새마을戰線에 나가기前 우렁찬 태권도 구령을 토해낸다고 가정하자! 이 氣合을 꼭꼭 동료들에게 들려주고 우리의 단결을 보여주고 싶다.

「體力은 國力」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 國民 모두가 우리 祖上이 傳해 줬고 우리가 世界에 土着시킨—— 그리고 結實을 맺고있는 國技跆拳道를 통해 統一된 精神! 統一된 수련을 거듭한다면 祖國의 來日은 밝은 것이 아닐까?

우리 구령에 맞추어 全國民이 태권도를 합시다.

「하나—— 둘—— 셋——」



跆拳道와 健康

李 翊 商

사람이 호흡을하고 물건을 보고 말을 하고 느끼고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살고 있다는 證據다. 죽은듯이 잠을 자고 있어도 호흡을 하고 脈動이 있고 體溫이 있는 것은 生命이 있기 때문이며 強弱深淺의 差는 있다 손 치며라도 모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生命에도 不意의 事故때문에 呼吸이 끊어지고 脈膊이 消失되고 하여 體溫이 식어 生命을 잃는 수도 있다. 不意의 災害나 重病에 걸리지 않는 限 人間으로서의 最大限의 年齡까지 살 수는 있다. 天壽을 다하기 위해선 사람은 健康해야 한다는 것이 第一要件이다. 恒常 藥과 親하고 醫師의 心세를 지고 있는 虛弱者가 長壽를 바라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얻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健全한 精神은 健全한 身體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格言이 있듯이 사람은 스스로 健康을 유지하는데 留意하지 않으면 안된다. 跆拳道를 하는 사람은 어찌서 健康한가? 跆拳道를하면 虛弱者나 病弱者가 왜 健康해지나? 이 對答은 跆拳道는 결코 無理없이 人間의 生理에 適合한 自然의 方法으로 해나가기 때문이다.

身體의 모든 부분을 고루 活動시키고 또 變化시키기 때문이며 생생하게 變化育成해나가는 大自然의 攝理에 따라 練習하는 運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跆拳道의 修鍊은 絶對로 無理한 것이 없고 弱한 者는 더욱 強하게 發達시키며 弱한 者에게도 無理를 避해 行할 수 있다. 漸次 修鍊을 쌓을수록 自然히 健康하고 生소한 促進力을 가져오는 自然의 攝理에 따르는 運動이라는 것이 跆拳道의 特質이라 할 수 있다. 跆拳道는 時間의 調節이 可能하고 氣合과 힘의 強弱等 모두가 自己健康에 따라 應分の 練習을 할 수 있기 때문에 醫師로부터 絶對安靜을 要한다는 진단이 있는 者가 아닌이상 虛弱者나 老人, 兒童, 婦人이라도 容易하게 練習을 할 수 있고 房이나 庭園에서 設備도 必要없이 기분동작, 품세등을 연습할 수 있다. 품세는 前後 左右 平均하게 全身에 있는 屈折이나 伸展이나 四肢의 關節은 勿論

脊椎骨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運動이 되며 따라서 內臟諸器官에까지 運動이 加해지기 때문에 血液通盪이 旺盛하게 된다. 품세의 技術의 向上에 따라 心身의 鍛鍊으로 充分한 健康으로 成果를 올릴 수가 있다. 前後左右로 허리를 비틀고 下腹部에서의 氣合과 함께 주먹을 지르는 動作은 매우 簡單한 것 같지만 精妙한 跆拳道基本的技術인 同時에 이 動作으로서도 훌륭한 健康에 效果의인 動作이 된다. 即 “허리를 튼다”(비트는動作)하는 動作은 脊椎骨에 運動을 加한다는 것으로 腹部의 運動도 同時에 일어나는 現象으로 이러한 前後左右를 여러가지 變化를 가진 품세를 行한다는 것은 一段의 脊椎矯正療法의 操作같은 結果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어떤 醫師는 “萬病은 脊骨 하나의 잘못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할만큼 萬病의 根源은 脊骨의 不整이 原因이라 한다던 確實히 前後左右로 움직여서 自然調節을 할 수 있는 跆拳道의 動作은 最善의 健康法이며 豫防醫學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특히 脊柱의 兩側으로 分枝된 神經이 各各 內臟諸器官에 미쳐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 動作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複雑한 것이없이 단지 허리를 틀며 氣合과 함께 주먹을 지르는 程度의 一動作으로 하여금 卓越한 効力を 가져오는 것이니 跆拳道야말로 優秀한 健康運動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나 발을 많이 使用하는 跆拳道의 優位性은 더 말할것 없이 健康維持 및 健康管理에 絶對的이고 理想인 훌륭한 體育이라고 할 수 있겠다.

端的으로 簡單하게 대와 場所를 가리지않고 老弱男女의 區別없이 器具의 使用없이 相對도 없이 修鍊하기 쉬운 跆拳道를 重病者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 권하고 싶다.

跆拳道는 모든 危險에 있어서도 몸에 武器를 가지지 않고 臨機應變으로 兇器를 防禦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護身術이기도 하다. 특히 婦인이 跆拳道의 품세를 修鍊하면 容姿가 아름다워질 뿐 아니라 健康美를 增進하여 一石二鳥의 效果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武術映畫 누빌 韓國跆拳道

林 正 一

昨年 世界映畫界의 不況도 아랑곳없이 全世界의 觀客을 몰아갔던 武術映畫의
 붐은 아직도 꺼질줄 모르고 있다. 이로因해 中國映畫界는 맨주먹과 맨발
 로 巨大한 富를 축적했고 李小龍(美國名: 부루스·리)은 온 世界 젊은
 이의 英雄이 되었는데! 昨年 허무하게도 이 英雄이 不歸의 客이
 되고 말았다. 외문의 죽음은 염대大王外에는 풀릴이 바이 없
 는데…… 아연 당황해진 중국영화계야말로 이제 맨발을
 벗고 맨손으로 世界의 별을 찾아 동방박사를 파견할
 입장에 있다. ……………(편집실 주)

映畫에 비친 태권도의 재미

昨年 劇場街에 붐을 일으킨 武術映畫의 興味는 과연
 어디서 일어난 것인가? 무엇이 그토록 觀衆을 흥분하
 게 만드는 것인가? 영화산업이 本格的으로 이루어진
 二十世紀 初부터 人間의 권선징악에 대한 영화즐거리
 는 해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런 중에서도 人間이 사
 는 世上인지라 태어나면 죽어야하고 싸우면 敗者가 나
 오기 마련인 것이다. 더욱 映畫라는 것이 四角의 畫面
 위에 주위를 감감하게 해놓고 人生事를 펼쳐가니 결은
 질할 틈도 없이 교차되는 승부世界를 노출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자! 무엇으로 對決할 것인가?

주먹! 총! 발! 발과 헤딩 그리고도 不足하여 칼, 몽
 땀, 총, 대포 이제 원자폭탄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죽어간 악당들을 세자면 주판이 不足할 지경이
 다. 게다가 일생에 두번 살기를 받먹듯한 스타들이 또
 부지기수다. 이런 부질없는 생각은 그만두고……

우선 주먹으로 싸우는 재미를 보자! 정의의 기사와
 회색의 악당이 화면에 나타났다. 둘이 신나게 싸우는
 판에 정의의 기사는 혼자고 상대는 여럿이다. 책상다
 리로 상대를 징계할 수 없다. 상대는 별때만큼 값있는
 놈이지만 정정당당히 정의의 주먹으로 하고 있다.

이런 판국이 되면 「정의의 기사」는 영남없이 얻어맞
 고 눈도 부어 보이진 않은채 다음 機會를 期約한다.
 그렇다고 총을 쓰자니 미처 화면에 담기가 바쁘게 끝
 나버리니 그 싱겁기는 말할 수 없다. 영화에 느닷없이
 「스로·비디오」를 쓸 수도 없고 눈이나 한번 감작 한
 사람은 영 영화의 재미는 망쳐버린 결과가 된다. 필자
 도 어르신절에 광고란 보코 「스슈아드」·그런지가 나
 오는 영화를 본 일이 있는데 어쩌나 빨리 상대가 죽어
 버렸는지 다음회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두번
 께에도 악당은 손놀림 틈이없이 승천해 버렸다. 배는
 고프고 결국 영화관은 나왔으나 人間의 힘이 아닌 文明
 의 利器로서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허망하다
 그것은 어섯발들이 권총이 서른 발을 쓰는 「마카로니
 ·웨스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태권도는 이런 問題를 해결해 주었다. 자!
 그 재미를 보자!

주인공은 앞으로 달려오는 악당을 「정권」으로 처지
 한다. 옆의 전봇대위에서 무엇이 나타난다. 「열차기」
 다. 그러자 뒤에서 또 꿈틀한다. 예잇——기합과 함께
 뒤돌아 열차가 있다. 그런데——이게 웬일인가? 四
 方에서 일기에 덩치치 않는가? 도리없지 않은가? 그
 러나 태권도는 말이 될 수도 없는 人間의 키를 훌쩍
 뛰어넘는다.

西洋人들이 말위에 수업을 달고 권총을 든채 어안이
 병병할만 하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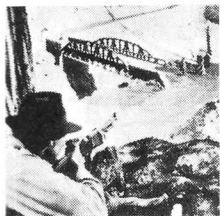
재미의 根源

그러면 이런 태권도는 오직 재미에 끝나는 問題인가
 재미만 가지고 人間을 그토록 심취시킬 수는 없다. 人
 間에게는 四肢가 있고 이것이 八方으로 同時に 自由로
 運動할 수 있다는 것은 確實히 理想의이기는 하나
 거의 空想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러나 世上살이에서
 相對와 對一이 되라는 법이 없는 것이며 對相對
 가 正面에서 나타나라는 법이 없는 것이다. 相對를 의
 식하지 않고 자신이 서 있는 곳을 회전반경으로 하여
 원을 그리고 모든 범위밖의 것은 시련에 接하여 이것
 을 극복하는 人間의 의지를 더 높히 사야할 것이며 결
 코 오락 그 自體로서 끝난 問題가 아닌 것이다.

이런호에는 그뜻으로서 興味에만 치우칠 일이 아닌
 태권도가 그 性格을 定立하기 위한 영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中國의 李小龍代身 本格韓國태권도가 世界市場
 에 선보이는 이야기를 실어본다.

李觀永사범 世界映畫界에……

지난해 五月 서울에서 開催된 「第一回 世界跆拳道
 選手權大會」는 또 하나의 話題를 남겼다. 即「프랑스」
 跆拳道選手團의 코치로 來韓했던 李觀永師範(6段 28歲)
 이었다. 李觀永師範은 아시아映畫界의 本產 遠東影業
 에발탁되어 8個作品에 主人公으로 활약하게 된 것이다
 同 映畫界에서는 바로 李小龍의 후계자가 나타난 것으
 로보고 모든 焦點과 話題를 그에게 돌리고 있다. 말속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권투의 영광)



(李小龍의 묘기)

한 마스크에 유연한 몸놀림 그리고 해맑은 미소를 잃지 않는 韓國跆拳道 6段的 李觀永은 藝名을 「알렉스·李」로 改名하고 李小龍에 對決할 決意를 보였다. 그의 데뷔작품이 될 「武道」는 지난해 12월 15日 臺北에서 「크랭크·인」되어 今年 1月末엔 마카오에서의 로케를 끝으로 늦어도 4月이면 世界の 觀客앞에 선을 보이게 될것같다. 이 武道の 기동중거리는 한국의 跆拳道와 日本 가메베의 對決, 全世界의 교포와 우리 觀客들은 한국의 아들 李觀永이 日本의 가라베를 때려부수는 통쾌함을 맛볼 것 같다. 이어서 그는 계속 7段的의 武術映畫에 출연할 계약을 맺고 있는데 2回作品은 2月中 旬 촬영이 시작되는 「小跆拳道王」이다. 이 영화 역시 태권도를 主題로한 兇惡영화로서 태권도를 익힌 主人公이 약한 자를 도와 惡을 소탕하는 권선징악을 바탕하고 있는 것 같다.

이관영은 앞으로 2年間 동영화사와 손잡고 일하게 되는데 편당 그가 받는 개런티만도 美貨 8千弗(한화約 320萬원)로서 이 또한 破格의인 배우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알렉스·李를 스카웃한 遠東影業은 아시아 굴지의 「쇼·부러더스」에 버금가는 大映畫社로서 美國과 구라영화가의 태권도 붐에 도전하면서, 쇼·부러더스의 간판스타 李小龍과 대적할 스타로서 알렉스 李를 내세운 것이다. 遠東影業은 12年間 중견감독으로 활약한 孫亞大감독을 제1의 世界태권도선수권대회가 開催되는 韓國에 파견해서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않고 진주를 찾아내고 만것이다. 世界の 武術이 모이고 또한 世界跆拳道의 宗主國인 韓國에서 기필코 眞珠를 찾아내기로 결심한 孫亞大감독은 드디어 入場式에서 무릎을 치게 되었다. 이때 프랑스選手團과 입장하며 손을 흔들어 관객에게 人事하며 들어오는 코치 이관영의 애교넉넉한 자태와 말쑥한 마스크에 초점이 맞춰진 그는 환호하는 관중의 갈채조차 잊어버렸던 것이다.

孫감독은 곧 本人과 주위를 번갈아 만나 映畫界의 데뷔를 종용했으나 本人의 反對에 부딪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李觀永師範은 프랑스뿐 아니라 전 유럽에 태권도를 토착화시키겠다는一念으로 태권도에만 專念하겠다는 初志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孫감독의 끈질긴 간청과 주위의 권유로 드디어 決心을 바꾸게 되었다. 인터뷰에서 그는 『초연생인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나는 오로지 태권도 속에서 살아왔을 뿐이다. 180日 轉換인 이 시점에서 무엇이냐고 말하겠는가? 이것도 태권도의 보급이라는 주

위의 권유도 있었고 이왕 발을 디딘 이상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시작한 바에는 남에게 지고싶지는 않다』고 굳은 결의를 보였다 한다.

한편 李를 스카웃한 孫亞大감독은 『「알렉스·李」는 장래성이 있는 程度가 아니라 내가 映畫界에 들어온以來 來를 찾아왔던 未知의 스타像이 그를 만나 現實로 具現되었으며 그의 마스크가 주는 맑으면서도 강한 印象과 균형잡힌 몸매와 유연한 몸놀림은 반드시 大成할 수 있으리라는 깊은 確信을 준다』고 갈라 말했다.

遠東映畫社측도 8個映畫에 新人인 그를 기용한 것은 壯運을 걸고 나선 것이라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月 下旬 「홍콩 페스티벌」에서 李는 배우의 자격으로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 가운데서 격파와 태권 등 神技에 가까운 場面을 演出해내서 3千餘 관객의 찬사에 에운마고도 홍콩의 全매스킴은 그의 寫眞과 함께 神技에 가까운 태권도를 대서 특필했다. 『신장 171cm 체중 75kg, 태권도 6段, 그리고 능통한 佛語와 獨語에 다 英語와 中國語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보배』라고 주석까지 달고 李小龍의 再生이라는 副題를 달았다.

그러나 이러한 대배적인 붐과 생소한 영화제에 뛰어들 李관영의 연기력이 얼마나 태권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시설과 환경에 놓인 이관영에게 아몽든 그의 운명과 더불어 세계연맹이 창설되고 世界大會까지 치른 韓國태권도의 불까지 향전에 쫓아지고 대활약하기를 성원하지 않을 수 없다.



(한영을 끝내고 一時 귀국한 이관영 六段)

野談

高麗獨立國 裴仲孫將軍

淸雲居士

우리 국토가 대륙의 동쪽 끝에 놓여 있는 관계로 북방 대륙에서 정치 세력이 바뀌질 때마다 그 영향을 받아 상하 수천년 동안에 혹은 한족족(漢種族) 혹은 여진족(女眞族), 또 혹은 계단족(契丹族·契丹族)들의 침략을 받아 왔고, 또 그럴적마다 그들을 격퇴시켜 민족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 왔던 것이다.

그런 중에 고려시대 후반기에 이르러 저 몽고민족(蒙古族)의 거센 침략을 받아 나라의 운명이 한 때 어둠 속에 들었던 일이 있었다.

몽고족은 원래 흑룡강(黑龍江) 상류 지대에 살고 있던 유목민들이네 그들 중에서 철목진(鐵木眞)이란 비범한 영웅이 생겨나 저희 종족을 통일하고 1206년에 대한(大汗)이라는 제왕의 지위에 올라 스스로 호를 성길사한(成吉思汗 成吉思汗)이라 하고 그 세력을 크게 뻗어 나갔다.

그들이 우리 고려를 침략하던 정위는 여기서 다 말할 수 없고, 다만 우리 고려 고종(高宗) 十八年(辛卯·一二三一)에 성길사한의 셋째 아들 태종(太宗)이 「산아내(撒兒臺)라는 장수를 시켜 우리를 첫번 침략한 이래 우리 고려에서는 이듬해에 수도를 강화도(江華島)로 옮기고 마침내 고종이 四十六年(一二五九)에 강화도에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무릇 二十八년간의 그 교난은 상상만해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고종이 죽고 그 아들 원종(元宗)이 위에 오르면지도 어느덧 十년, 그 동안에 몽고의 시달림에 견디다 못하여 조정에서는 두 파로 나뉘지교야 말았다.

하나는 욕지로(옛도읍지인 송도로) 나가서 몽고에 항복하고서라도 숨을 쉬고 사는 것이 옳다는 파요, 다른 하나는 비록 바다 속으로 더 멀리 들어가 마침내 죽고말지언정 몽고에 항복할 수는 없다는 파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우리 고려 사람 최탄(崔坦)이란 자가 조국에 반역하고 자비령(慈悲嶺) 서쪽 땅 말하면 지금 황해도 평안도 땅을 들어 몽고에 붙어버리고 또 조휘(趙暉)나 탁정(卓淸)이니 하는 놈들은(和州, 지금 永興) 이북의 땅을 가져다가 몽고에 항복해 버리므로 실제로 있어서 국토의 북부 이상이 모두

몽고의 소유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원종 十一年(一二七〇)에 고려의 정부가 강화도를 버리고 송도로 항복해 나가니 처음 들었을 때부터 무릇 三十九년이 되는 해였다.

그러나 원종을 따라 항복하고 나가는 행동에 전부가 추종하는 것은 아니었다. 에 때 「삼별초」(三別抄)를 중심으로 한 열혈장병들은 정부의 항복태도에 반기를 들고야 말았다.

우리는 목이 달아날지언정 독립 고려 국으로서 몽고에 피로써 항쟁할 다름이다.」

이것이 그들의 선언이었다.

그런데 이 「삼별초」라는 것은 본시 「야별초」(夜別抄)라고 하여 정부에서 세력을 쥐고 있던 최씨(崔氏)의 사병조직체이었던 것인데 그 수요가 차츰 증가해져서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뉘서 二별초가 되었고 다시 그 위에 몽고에 잡혀갔다가 도망해 돌아 온 청년들을 모아 「신의군(神義軍)」이란 깃발을 만든 것이 합해져서 이른 바 세별초가 된 것이다.

그들은 본시 생겨진 내력으로 보아서 어떤 집권세력의 호위부대처럼 활동한 정도 없지 않았지만 다시 다른 한편으로는 몽고와 같은 다른 민족의 침략에 대항해 싸우는 구국의 의용병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조국의 독립정신을 가슴에 품고 항복해 나가는 정부의 문약배들에게 무수한 욕을 퍼 부었던 것이다.

원종은 송도로 돌아와 여러번 강화도에 사람을 보내어서 모두 같이 욕지로 돌아오라고 권했으나 끝내 듣지 않으므로 나중에는 정부의 위력으로 「三별초」의 명단을 뺏았었다.

「아니 우리 삼별초의 명부는 왜 뺏아가지고 가는 것일까?」

「아마 우리 명부를 저 몽고놈들에게 넘겨 주어서 장차 우리를 도륙할 작정인가 보다.」

이러한 말들이 삼별초 군인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과연 그렇게 의심도 할만한 일이었다.

「인제는 이래도 죽는 목숨이요, 저래도 죽는 목숨이다.」



「그렇다, 인제는 싸우는 길 밖에 없다.」

이렇게 하여 그들의 결심은 불덩이 같이 굳어졌다. 그때 그들의 지도자는 배중손(裴仲孫) 장군이였다. 배중손은 위로 왕씨 자손 중에서 승화후(承化侯) 온(溫)이란 이를 받들어 왕을 삼고 아래로 야별초의 지휘자 여영희(盧永禧) 등 여러 동지와 함께 완강한 태항전을 벌였다.

한편으로 독립 고려국의 정부를 세우고 관리를 임명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온 섬 안을 돌아다니며 「장차 몽고놈들이 와서 우리를 모조리 살해하려고 한다」고 외쳐 민심을 격동시켰다.

그러나 그것은 도리어 역효과가 났다. 겁내는 민중들이라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항쟁하려는 자 보다 우선 굴복하려는 자가 더 많아지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혹은 밤중에 배를 타고 육지로 도망가는 자 또 혹은 숲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자들이 자꾸만 생겨났다.

배 중손 장군은 이같은 민중 속에서 모래 백여년 것 같지 않아 장성들끼리 모여 회의한 끝에 거리로 나가서 피 땀은 목소름로 호소하여 외쳤다.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다. 저 석은 조정을 따라 육지로 나가서 몽고놈들의 노예가 되는 길이 있고, 또 한 길은 멀리 섬 속으로 들어가 비록 일생을 고생으로 넘길 망정 독립고려국을 세워 몽고놈들에게 항쟁하는 길이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은 이리로 와서 저 배를 타다.」 하였던

다.

삼별초의 군인들은 물론 나섰다. 그리고 섬 안에 사는 사람으로도 의기와 피가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을 싣고 역시 따라 나섰다. 그리하여 배를 띄우니千여척이요, 수만명 사람이었다. 그들은 정든 강화도를 떠나 가며 눈물을 뿌렸다. 그러나 그들의 눈물은 더 큰 비문에서 터져 오르는 의기의 눈물이었다.

그들의 선단은 서해를 거쳐 남으로 남으로 내려 갔다. 몇 날이 지나 목포(木浦) 앞을 지나 진도(珍島)에 이르렀다. 앞에는 명량(鳴梁) 해협의 험한 물결이 있고 또 섬 안이 넓어 많은 백성들을 풀어 놓을 만한 곳이 되겠기로 그들은 여기다 배를 대었다.

이 소식을 들은 송도 정부에서는 김 방경(金方慶)에게 명령하여 몽고 원수(元帥) 혼도(忻都)란 자와 함께 큰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그들 독립군과 싸우게 했다.

독립군 배 중손 장군들은 아무리 훌륭한 기백과 의분은 품었을 망정, 군량과 무기는 넉넉할 도리가 없어 마침내 정부군에게 설멸을 당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배 중손 장군을 비롯한 많은 장병들이 원한을 품은 채 진도의 귀신이 되고 다만 그의 동지 중에 김 통정(金通精) 장군이 남았다.

그래서 김 통정 장군은 다시 남은 군사들을 배에 싣고 그곳을 떠나 멀리 탐라(耽羅=濟州島)로 들어가 안팎으로 두 개의 점성을 쌓고 여전히 독립고려국을 세우고 새로이 항쟁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랬으나 몽고군과 정부군의 연합군 앞에 어지할

리가 없어 그는 최후의 동지 七十여인과 함께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나뭇가지에 목을 매어 자결함으로써 독립 고령국의 항쟁을 끝마치니 때는 원종 十四년(一二七三)이었다.

×

×

이 역사적 사실은 참으로 민족정기사상 특기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배중손 여영희 김통정 등 위대한 독립항쟁의 영웅은 그 이름을 큰 활자로 특기하여 뒷세상에 전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옛 역사의 문헌인 고려사(高麗史)에는 그들의 이름을 반역전(叛逆傳)에다 편입시켜 그들의 혼을 천추에 슬피 울게 하였다.

그래 그들이 무엇에 반역했던 말인가 몽고에 항쟁한 것이 반역인가. 몽고에 아부하여 노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송도의 피폐정부에 따라 가지 않았다고 그것이 반역이었는가.

사대적(事大的)인 옛 역사가는 그들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고 또 일제시대에는 역시 독립정신을 고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수정하지 못했대고라고 해방된 오늘에 있어서는 우리 역사를 우리 사상으

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나마 그들을 장군으로 높이 일컫는 것이며 김 방경같은 몽고의 부속인물은 그가 아무리 승리한 기록을 가진 무인일지라도 독립군을 죽인 사람밖에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보다 몇 해 뒤인 一二七九년에 몽고에 끌려가서 죽은 중국 송(宋)나라의 문천상(文天祥) 같은 이는 그가 몽고의 옥 중에서 「정기가(正氣歌)」를 짓고 끝까지 몽고에 항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오늘날 七百년을 두고 우리들이 모두 다 「문천상의 정기가」를 외우며 그를 위대한 인물로 칭양해 오지 않는가.

그러면 어찌하여 송나라 사람 문천상이 몽고에 항쟁한 것은 위대하고 우리 고려 영웅 배중손 장군이 몽고에 항쟁한 것은 반역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는 이야기만 읽지 말고 다시 한 번 생 각해 볼 일이며 또한 동시에 민족 정기의 피묻은 항쟁 사상에 배중손 장군여 영희 장군 김-통정 장군이 있는 것을 다시금 외어 두기를 바란다.

高麗史本紀列傳

For Subscribers Abroad

「태권도」誌 購讀 希望者에게 알림

국기태권도 보급 발전에 참여하는 회원 여러분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본 협회에서 발간하는 태권도지는 회원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고자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있으며 구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구독료를 보내주시면 발간하는 즉시 우송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협회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와 태권도 보급 발전에 더욱 큰 기여가 바라며 회원 여러분에 전투를 빕니다.

구 분	1회분 송료	1년분 송료	비 고
국 내	40원	160원	(송료는 등기금액 일)
1 지역	80¢	3\$20¢	Chiina, Hong Kong, Macao, Ryukyu, Japan.
2 지역	1\$	4\$	Alaska, Burma, Cambodia, Guam, Laos, Malaysia, Vietnam, Philippines, Midway, Singapore, Thailand
3 지역	1\$50¢	6\$	Near East Asia, Pakistan, India (except the areas in cluded in 1st, 2nd and 4th zone) Canada, Hawaii.
4 지역	1\$80¢	7\$20¢	Eurore, Central America, South America, West Indias, Middle East Asia (Iran, Iraq, etc.)

<協會 動靜>

- ★ 1月 4日 始務式거행, 업무규사무총장 신년도 행정 세신과 능률적인 사무집행에 대한 훈시
- ★ 1月 7日 제1회 초중고교 체육교사 및 태권도 지도교사 연수교육을 국기원에서 김운용회장 및 협회 임원을 모신 가운데 실시(12일까지 참가인원 150명)
- ★ 1月 7日 1973년도 수지결산보고와 '사업보고에 대한 감사를 이제광 전철 당협회 감사가 시행하다.
- ★ 1月 9日 체육회제-회의실에서 제3차 이사회개회 안건: 1) 1973년도 사업보고및 수지결산 보고
2) 1974년도 사업계획및 수지에산 심의
3) 기타중요사항
4) 부회장및 이사 명예단증및 도복수여
5) 중·교연맹및 대학연맹 임원 인준
- ★ 1월12일 국기원에서 김운용회장을 모신 가운데 제 8기 지도자교육 입소식과 제1회 초·중고등학교 체육교사및 태권도 지도교사의 특별 연수교육 수료식을 거행(수료자: 이봉수 외 149명, 지도자교육 수료자: 하효영 외 57명)
- ★ 1월13일 1973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詳報 本文)
- ★ 1월13일 삼흥빌딩 OB코인 싸롱에서 대의원 27명과 임원 23명이 모인 가운데 김운용 회장 주최 만찬회 성료(右寫眞)
- ★ 1월14일 제8기 지도자 교육 실시(국기원, 참가인원 58명)
- ★ 1월15일 국기원에서 65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8기 지도자교육 수강생을 초청하여 회장님이 만찬회 개최
- ★ 1월28일 지도자(사범) 보수교육 입소식 거행 참가인원 이병규의 85명
- ★ 1월30일 제1회 지도자 보수교육자 초청만찬회 회장 및 임원 다수참석
- ★ 2월 5일 기술심의 전체회의의 개최 본회 사무실에서 제1회 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개회의 건과 제1회 국제 태권도 심판강습회개회 및 도장설치 규정 개정의 건을 놓고 심의하다.



<총회에서 嚴査사무총장이 質疑答辯을 하고 있다>

- ★ 2월10일 제23회 소년부 승단심사대회를 국기원에서 개최
- ★ 2월12일 1973년도 체육회제정 우수선수 표창 및 정기대의원 총회에 수상자 김철환(동양공전)선수와 협회 업무규 사무총장이 대의원으로 참석
- ★ 2월16일 각관, 각지도부·각연맹 실무자회의의 개최 대한 체육회 제 1회의실
9개관 사무장, 경남 제주를 제외한 8개시도지부 전무이사 및 회장과 3개학교연맹 전무이사 참석 김운용 회장의 협회 임원 다수
각시도지부와 각연맹에 1/4분기 보조금 50,000원씩 지급하다
- ★ 2월21일 제 5기 심판교육 및 3급 심판자격시험 실시 참가인원 185명 합격자 137명
- ★ 2월27일 윤석현 이사 명예 3단증수여
- ★ 3월 1일 제57회 전국승단심사대회 298명



<총회후에 있는 만찬회장경>



도 정 설 치 규 장

서기 1962년 6월 25일 제정

서기 1963년 6월 1일 개정

서기 1974년 2월 5일 개정

제 1 장 목 적

제 1 조 국가 내권도의 자질향상을 꾀하며 사도 도장의 난립을 막고 국민 보건 체육 향상의 유쾌한 환경을 정비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설 치 범 위

제 2 조 본회에서 승인하는 단체

제 3 조 각 관의 중앙도장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장 설 치 조 건

제 4 조 도장 소재지의 지명 한계는 아래와 같다.

- 1) 특지: 서울특별시로 정한다.
- 2) 갑지: 부산직할시 및 도청 소재지로 정한다.
- 3) 을지: 시, 군, 읍, 소재지로 정한다.
- 4) 병지: 면, 리 소재지로 정한다.

제 5 조 도장 실내 평수는 아래와 같다.

- 1) 특지 및 갑지는 30평 이상
- 2) 을지 및 병지는 25평 이상(순 실내평수)
- 3) 기존 가맹도장에서 특지, 갑지는 반경 300미터, 을지, 병지는 반경 200미터 이내에는 도장을 설치할 수 없다.

제 6 조 도장 실내는 반드시 송판 또는 매트 시설이 구비 되어야 한다.

단, 시설이 불비 하였을 시는 기한부로 시설한다는 제약 조건으로 가승인 할 수 있다.

제 7 조 공공단체 건물은 관의 간판을 게시할 수 있으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간판 게시를 못하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단, 종합 체육관내 태권도부는 제외한다.

제 8 조 단체 가맹은 중앙도장을 경유하여 본회에서

인준을 득한다.

단,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시, 도지부를 경유하여 본회에 제출한다.

제 9 조 본회에서 인준된 단체는 소정의 구비서류 및 가맹금을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본회의 단체 가맹금은 1개 도장 단위로 5,000 원으로 정한다.

단, 단체가입이 승인된 도장에는 가맹 도장 간판을 지급한다.

제 4 장 설 치 자 격

제 11 조 지도 사범은 본회에서 인정한 하기의 단을 기준으로 정한다.

- 1) 특지는 5단 이상자(중앙도장에 한함)
- 2) 갑지는 4단 이상자(서울특별시, 직할시내 각 시 지관)
- 3) 을지는 3단 이상자(사전 자격 인준을 득하여야 한다)
- 4) 병지는 2단 이상자(사전 자격 인준을 득하여야 한다)

제 12 조 각 대학교 및 중, 고등학교는 본회에서 인정하는 당교 유단자 교사가 지도할 수 있으며 사회인으로서 본회에서 인정한 유자격자를 초청시는 지도에 입할 수 있다.

제 5 장 부 칙

제 13 조 가입 승인된 단체는 본회 명의로 허가증을 발급한다.

제 14 조 본 규정은 제정일로 부터 발효한다.

제 15 조 본 규정에 미비된 점은 통상 판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구 비 서 류

- | | |
|-------------------------|------|
| 1. 단체가입 인가신청서 | 1통 |
| 2. 이력서 | 1통 |
| 3. 신원증명서 | 1통 |
| 4. 명함관 사진(사범) | 2매 |
| 5. 도장 소재지 약도 | 1매 |
| 6. 단증 및 사범자격증 사본 | 각 1통 |
| 7. 재산 사용 승락서 | 1통 |
| 8. 등기 등본(가족대장) | 1통 |
| 9. 인감증명서(전물소유자) | 1통 |
| 10. 출신학교 졸업증명서 | 1통 |
| 11. 도장 실내 사진 | 1매 |
| 12. 도장 정문에 간판이 들어 있는 사진 | 1매 |

단 체 가 입 신 청 서

- | | | |
|------------------|---|---|
| 1. 단 체 명 : | | |
| 2. 창 립 년 월 일 : | | |
| 3. 소 재 지 : | | |
| 4. 도장평수및총계수 : | 평 | 총 |
| 5. 전 물 소 재 권 : | | |
| 6. 출신도장 계통 및 : | | |
| 사 사 사 법 평 : | | |
| 7. 사범 수련 년월일 : | | |
| 8. 사 법 명 : | | |

상기 도장은 귀회 제반 규정을 엄수하고 귀회에 가입코져 별첨 서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옵기 앙망하나이다.

서 기 19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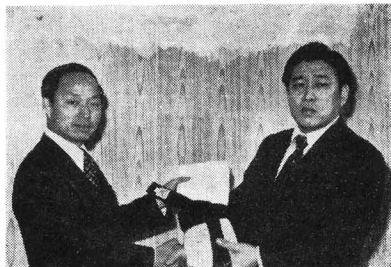
중앙본관장	(인)
단 체 명	(인)
대표자 명	(인)
사 법 명	(인)

대한태권도협회장 귀하

規格(19cm×27cm)

駐佛韓國大使 尹錫憲氏에 명예단증
世界跆拳道聯盟 金雲龍 總裁 수여

지난 三月二日 一時귀국하여 現地에 부임하는 尹錫憲 駐佛韓國大使의 명예단증 수여식이 本協會 事務室에서 있었다.



이자리에서 金雲龍 會長은 프랑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범들의 뒷바라지를 부탁하면서 그들이 現地에서 相互協力하고 단합을 보이도록 주선해주시기를 부탁했다. 그리고 『모처럼 일기 시작한 유럽제국의 태권도품이 태극기발아래서 모여 한국의 發展되는 이미지를 부각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태권도일을 통한 民族魂이 海外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애국심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적으로 어려운 時期를 당한 民族의 現實에 비추어 극기하고 단합하는 정신을 일깨워주시기를 거듭 부탁한것이다.

이자리에서는 명예단증과 아울러 도복의 증정식이 있었는데 주불대사 윤석원씨는 함박 미소를 띠우면서 『世界를 향해 뻗어가는 跆拳道가 마치 우리의 國力처럼 유럽에 인식되어 한국과 프랑스의 교류를 더욱 돈독히 할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기필코 프랑스가 한국 태권도를 發展시키는 先頭走者가 될것』이라고 굳게 약속했다.

『이 단증과 도복은 비록 명예의 수여이지만 나도 한국사범들과 나란히 수련에 임할것이며 이로써 世界태권도인이 프랑스에 한사람 더 늘게 되었다』는 조크도 잊지 않았다.

金 雲 龍 會 長

大韓體育會 및 大韓올림픽委員會의 副會長에 選任



本會 金雲龍會長이 지난 二月十五日 構成된 體育會 새 執行부의 副會長에 選任되었다. 金雲龍會長은 一九七一年 三月에 本 跆拳道協會 會長에 選任된뒤 一九七三年에 世界跆拳道聯盟 총재에 추대되고 이번 構成된 新執行부의 副會長으로 選任되었다. 金雲龍 大韓體育會 副會長은 大韓올림픽委員會(KOC)의 副會長도 겸하게된다.

이번 構成된 新 執行부의 특징은 第七回 아시아 경기대회에 대비, 앞으로 豫想되는 南北韓 「스포츠」 對決에 대비해서 어느때보다 強力하게 짜여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른바 老將과 중견 및 新人을 총망라하여 경험과 박력과 투지를 갖췄다는 것이 金澤壽 會長의 풀이.

從來의 네임 벨류에 치우친 人事들을 떼고 실질적인 힘을 發揮할 수 있는 人事들이 기용된 것도 特徵, 卽 오늘날의 스포츠가 단순한 스포츠 경쟁의 영역을 벗어나 國力の 對決이라는 인식이 이번 집행부 구성에 크게 영향된것 같다. 아무튼 新任 大韓체육회 金雲龍 副會長의 대활약이 大韓體育會의 發展과 한 국제육에 크게 기여하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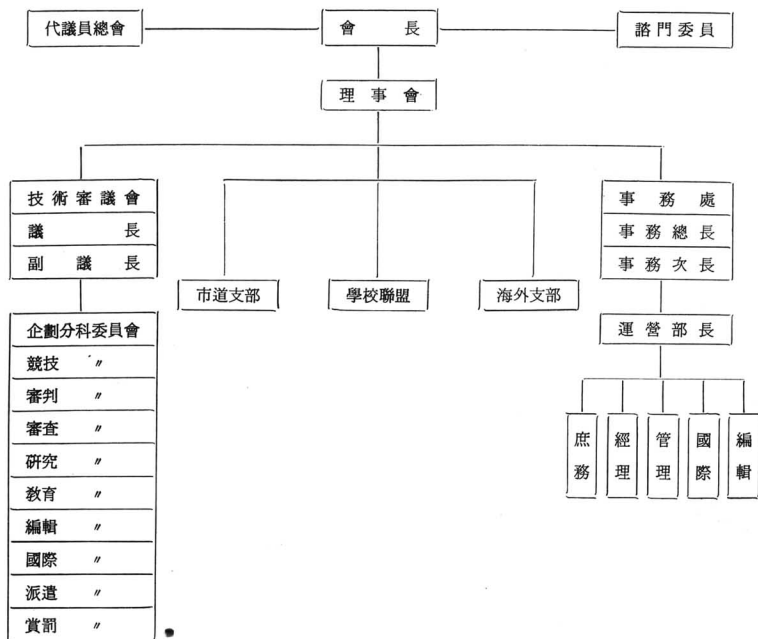
(世界跆拳道聯盟 임원 명단)

Memb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the World Tae Kwon do Federation

— Title, Name, Profession and Nationality. —

- President: Mr. Un Yong Kim, Prdeisent, Korea Tae Kwon Do Association, Korea.
- Vice-Presidents: Dr. Roland De Marco, President, American-Korean Foundation, U.S.A.
Dr. Leo Wagner, Member of Parliament, West Germany.
Dr. Myung Hoe Kim, Member of National Assembly, Korea.
- Secretary-General: Mr. Chong Woo Lee, Director, Academy of Education, Korea Tae Kwon Do Association, Korea.
- Executive Members: Mr. John M. Murphy, Member of U.S. Congress, U.S.A.
Mr. Marx Heinz, President, German TaeKwon Do Association, West Germany.
Mr. Manuel Mondragon Y. Kalb, President, Mexican Tae Kwon Do Association, Mexico.
Mr. J.A.A. Etima, Dean of Prison's Staff College, Uganda.
Mr. L. Lacoste, Director, Tax Government of France, France.
Mr. KunSuk Park, President, Pan-Ocean Bulk Carriers Ltd., Korea.
Gen. Ungku Nazaruddin, Chief of the General Staff, Malaysia.
Gen. Wego W.K. Chiang, Vice-President, Armed Forces College, China.
Mr. Tang Chee Yuen, Executive Director, National Sports Promotion Board, Singapore.
Mr. Cihat Uskan, President, Turkish Tae Kwon Do Association, Turkey.
Mr. Moo Seung Park, Vice-President, Korea TaeKwon Do Association, Korea.
Mr. Un Kyoo Um, Secretary-General, Korea TaeKwon Do Association, Korea.
Mr. Nam Suk Lee, Chairman, Council of Techniques, Korea TaeKwon Do Association, Korea.
Mr. Chong Soo Hong, Assistant Head Master, Kuk-Ki-Won, Korea Tae Kwon Do Association, Korea.

大韓跆拳道協會 機構表



대한 태권도협회 각 시·도 지부 회장단 명단

도 별	지	위	성	명
경기도 지부	회	장	이 기 상	전 무 이 사 한 재 수
충청북도	회	장	정 갑 순	전 무 이 사 김 용
충청남도	회	장	노 일 환	전 무 이 사 김 용 길
전라북도	회	장	권 용 수	전 무 이 사 유 병 용
전라남도	회	장	전 철 석	전 무 이 사 김 만
경상북도	회	장	조 용 락	전 무 이 사 최 규 열

도 별	지	위	성	명
경상남도	회	장	안 무 상	전 무 이 사 최 오 식
부산지할시	회	장	송 규 원	전 무 이 사 손 석 진
강원도	회	장	신 철 군	전 무 이 사 이 희 철
제주도	회	장	유 원 철	전 무 이 사 화 봉 택
재일지부	회	장	황 철 복	사무총장 강 정 협

大韓跆拳道協會 技術審議會 任員名單



會長 金雲龍



當然職委員
事務總長 嚴雲奎



技術審議會
議 長 李南石



技術審議會
副議長 裨永基



技術審議會
副議長 李炳路



企劃分科委員會
委員長 高在天



企劃分科委員會
副委員長 宋相根



競技分科委員會
委員長 金寅錫



競技分科委員會
副委員長 韓永泰



競技分科委員會
副委員長 邊東植



審判分科委員會
委員長 李敎允



審判分科委員會
副委員長 池相燮



審判分科委員會
副委員長 金東善



審査分科委員會
委員長 金順培



審査分科委員會
副委員長 禹濟林



研究分科委員會
委員長 洪正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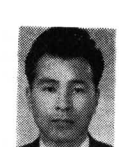
研究分科委員會
副委員長 鄭炳和



教育分科委員會
委員長 玄友泳



教育分科委員會
副委員長 朴海滿



教育分科委員會
副委員長 金容瑞



編輯分科委員會
委員長 李永燮



編輯分科委員會
副委員長 全正雄



國際分科委員會
委員長 白駿基

(未 着)



國際分科委員會
副委員長 金鳳植



派遣分科委員會
委員長 玄鍾明



派遣分科委員會
副委員長 金先九



賞罰分科委員會
委員長 李龍雨



賞罰分科委員會
副委員長 李今拱

當然職委員
事務次長 姜元植

大韓跆拳道協會

1974年度 任員名單 (1974. 2. 4)

중·고 태권도 연맹 임원명단

1973년 12월 5일

理 事 會		諮 問 委 員		
職 位	姓 名	韓相國 盧秉直 金鎔采 徐仁錫 梁潤世		
會 長	金雲龍	技 術 審 議 會		
副會長	鄭仁永 朴武昇 朴普熙	議 長 李 南 石 副 議 長 裴永基・李炳路		
理 事	李載尚 金鴻來 李敏廈 李錫龍 張鳳均 金鳳均 韓鳳珠 朴容星 韓基旭 韓淳吉 趙錫來 金永一 嚴雲奎 金奎鎬	分科委員會 委員長 副委員長 企劃分科委員會 高在天 宋根根 競技 " 金寅錫 韓永泰 審判 " 李教允 邊東植 審查 " 金順培 禹濟林 研究 " 洪正杓 鄭炳和 教育 " 玄友泳 朴海滿 金容瑞		
監 事	李啓光 田 哲	編 輯 " 李永燮 金正雄 國 際 " 白駿基 金鳳植 派 遣 " 玄鍾明 金先九 賞 罰 " 李龍雨 李今烘		
事 務 處				
事務總長	嚴雲奎			
事務次長	姜元植			

職 位	성 명	학 교 명	직책	비고
회 장	이인근	동대문상업고교	교장	
부 회 장	조기상	장훈고등학교	"	
"	강석규	대성고등학교	"	
"	박원락	광성고등학교	"	
"	오창익	남산공업전수학교	교감	
전무이사	노상석	중화중학교	교사	
총무이사	오원승	남산공업전수학교	"	
경기이사	송대현	동산고등학교	"	
기획이사	문창안	대성고등학교	"	
재무이사	김종광	수송천기고등학교	"	
섭외이사	조원길	광성중학교	"	
이 사	황석근	장훈고등학교	"	
"	오주열	체육중학교	"	
"	이승희	송림고등학교	"	
"	김윤환	동대문상업고등학교	"	
감 사	이인선	동산고등학교	"	
"	김인수	대성중학교	"	

國民學校跆拳道聯盟 任員名單

(1974年 1月12日)

職 位	姓 名	職 責	備考
會 長	梁大錫	서울고동국민학교장	
副 會 長	崔光達	서울신답국민학교 교감	
"	李德根	경북칠곡송신국민학교 교감	
"	金聖經	강원황성덕고국민학교 교감	
"	張順洙	충북청주서교국민학교 주임	
專務理事	洪建約	서울전능국민학교 교사	
理 事	지동원	서울홍제국민학교	總務
"	주상일	서울월곡국민학교	競技
"	강두형	서울시흥국민학교	企劃
"	이양우	서울영등포국민학교	財務
"	임준배	서울서빙고국민학교	審議
"	주장완	서울남산국민학교	
"	조연환	경기파주금신국민학교	
"	김일희	서울신답국민학교	
"	황한배	강원춘천강원도교육위원회	
"	변효성	충북청원남일국민학교	
"	송창근	충남대천전동국민학교	
"	오재연	전북남원군삼의국민학교	
"	신인길	전남화순도암국민학교	
"	이상복	경북칠곡대천국민학교	
"	심우근	경남삼천포시대성국민학교	
"	김병걸	부산시부민국민학교	
監 事	김광남	서울대신국민학교	
"	최진익	서울용암국민학교	

大學跆拳道聯盟任員名單

(1973. 12. 28)

職 位	姓 名	學 校 名	備 考
會 長	朴大善	延世大學校	
副 會 長	金知鶴	檀國大學校	
	柳根林	慶熙大學校	
專務理事	盧熙德	서울大學校	
實行理事	李丙旭	仁川體育專門學校	
	金順培	延世大學校	
	梁泰成	中央大學校	
	韓基文	光云電子工科大学	
理 事	金柱洪	東洋工業專門學校	
	강준식	公州師範大學	
	金健洙	明知大學	
	左誠一	東亞大學校	
	李洪鍾	京畿大學	
	金大健	東國大學校	
	崔東潤	朝鮮大學校	
	李守熙	서울教育大學	
監 事	文鍾萬	京畿工業專門學校	

國技院院長 및 副院長



院長 金雲龍



副院長 洪宗乎

大韓跆拳道協會 市道支部 任員 名單



(경기도)
會長 이기상



(강원도)
會長 신철군



(충청북도)
會長 鄭甲淳



(충청남도)
會長 노일환



(전라북도)
會長 권용수



(전라남도)
會長 田 哲



(경상북도)
會長 趙鏞樂



(경상남도)
會長 安武根



(부산직할시)
會長 宋奎源



(제주도)
會長 元允徹

大韓跆拳道協會 初·中·高·大學聯盟會長團



(大學聯盟)
會長 朴大善



(大學聯盟)
專務 노희덕



(中高聯盟)
會長 李仁根



(中高聯盟)
副會長 강석규



(中高聯盟)
副會長 조기상



(中高聯盟)
專務 노상석



(國民學校)
會長 梁大錫



(國民學校)
副會長 최광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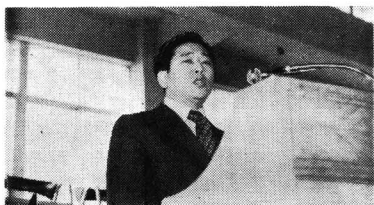
(國民學校)
專務 홍전표

在日支部 및 副會長
團의 몇 분을 未着
으로 신치못함

指導者 教育 修了者 名單

跆拳道精進의 汗을 삼은 1974年의 年初로 부터 뒤늦게 찾아온 강추위도 아랑곳없이 國技院에서 指導者教育이 連續의으로 強行되었다.

金雲龍會長을 비롯하여 任員들은 『實質向上으로 內實』을 期하도록 당부했고 特別 이번 國民學校 教育課程에 태권도의 품새가 삽입됨으로써 더욱 強化된 이번 教育의 特別 目的은 師範範 아니라 初, 中, 高校 教師를 망라한것——合格者여러분께 祝賀를 드린다.



「實質向上으로 內實」……金雲龍會長의 致辭

第 7 期 指導者教育修了者 <國技院> 1973年 11月 19日~24日(6日間)

1173 李川雨	1174 宋良奎	1175 李錫烈	1176 金正奉	1222 柳良根	1223 李相說	1224 安承龍	1225 張基昇
1177 李洛萬	1178 李璇九	1179 閔厚基	1180 朴德成	1226 崔世文	1227 金炯元	1228 李海元	1229 金鐘重
1181 張大錫	1182 曹成煥	1183 申現植	1184 李宗洙	1231 韓榮勳	1232 李勝熙	1233 黃寧學	1234 林吉澤
1185 김태유	1186 劉永漢	1187 李義源	1188 文炳斗	1235 朴正末	1236 朴秀南	1237 崔基浩	1238 金相結
1189 閔亨根	1190 尹英儀	1191 朴武昌	1192 金永浩	1239 金寬謨	1240 李榮基	1241 鄭泰喜	1242 金潤泰
1193 金赫培	1194 李孝兆	1195 金興珠	1196 金善命	1243 安東鎭	1244 金敬俊	1245 許地會	1246 盧春吉
1197 李正男	1198 李載權	1199 吳明均	1200 朴久英	1247 朴勇渠	1248 李元一	1249 崔南圭	1251 李英煥
1201 李成雨	1202 金榮淑	1203 吳 松	1204 金英基	1252 金承漢	1253 宋滙天	1254 金基烈	1255 金贊會
1205 韓東珠	1206 金吉煥	1207 李永德	1208 金誠一	1257 朴圭宣	1257 金德根	1258 趙京鎬	1259 鄭尊雄
1209 朴吉道	1210 韓東演	1211 梁永喆	1212 張正雪	1260 朴炳文	1261 金熙旻	1262 洪一和	1263 金相珍
1213 崔五植	1214 金倬道	1215 李康兆	1216 李錦洙	1264 俞炯珠	1265 崔珍鳳	1266 丁三鎭	1267 盧熙祥
1217 金東燮	1219 李京鎬	1220 韓弘燮	1221 安明植	1268 姜善吉			93名

慶北大邱地城 參級審判委員資格試驗 合格者 1973年 11月 24日~25日 實施

李鐘昊	崔圭烈	金正勳	朴斗圭	李義旭	宋柳植	崔洛德	李楨孝	崔元國	李永教
朴淳福	崔盛一	李賢雨	李容健	朴成珍	都尙坤	李柱煥	權再秉	金寬作	朴應用
金聖基	林孝秀	金政太	芮照海	朴八根	崔南教	鄭在弘	金景夏	朴鉉植	金泰永
金義安	金文奎	李承吉	金一文	宋浚基	具木會	崔友炳	趙萬在	朴世會	鄭重聲
申相封	金道夫	金盛男	白清治	崔末福	金春萬	李榮浩	吳光雄	洪淳徹	朴中和
徐正道	裴萬福	朴在春	崔末教	趙相浩	金永俊	具永椿	李承學	孔敬讚	黃吉性
鄭淵德	權正一	李德根	文大規	曹喜三	安秉勳	韓昌烈	韓錦東	尹賢九	張春植
朴相五	吳在述	朱東熙	金七萬	金仁煥	崔五植				76名

第 7 期 指導者 教育修了者 <2次>大邱 1973年 12月 13日~18日(6日間)

1269 宋浚基	1270 崔元國	1272 洪淳徹	1273 朴成珍	1301 朴聖國	1302 劉永鐘	1363 曹喜周	1304 張達秀
1274 金義安	1276 吳光雄	1279 金聖源	1980 金聖基	1305 沈南洙	1306 趙相浩	1307 金龍文	1308 鄭重聲
1281 金珠明	1282 文大現	1283 裴裕賢	1284 金昌夫	1309 李相默	1310 金榮坤	1311 金容見	1312 宋善起
1285 南哲祐	1286 金熙潤	1287 李鐘孝	1288 李永教	1313 李鐘昊	1314 金正勳	1315 權七虎	1316 柳寅龍
1289 李光錫	1290 鄭源福	1241 裴福仙	1292 黃允治	1317 鄭海容	1318 車鐘洙	1320 崔奎泰	1321 姜敬式
1293 崔淳格	1294 許成旭	1295 李點俊	1296 鄭福煥	1322 權宗乙	1323 李承學		
1297 文鐘樂	1298 崔亨洙	1299 朴贊吉	1300 崔末福				

第1回 初, 中, 高, 體育教師 研修教育 1974年 1月 7日~12日

1 李奉洙	2 변호성	3 曹綿煥	4 趙顯重	77 李永鍾	78 朴昌德	79 金權默	80 朴秀煥
5 曹圭錫	6 朴元植	7 劉敬穆	8 양장일	81 鄭鎮國	82 金鎮國	83 宋堯植	84 林仁成
9 申丁均	10 韓潤東	11 忠李義	12 李丙文	85 梁承吉	86 文燮洙	87 金明世	88 廉在俊
13 金鍾天	14 李德根	15 洪建杓	16 金秀男	89 河孝明	90 金義植	91 任炳喆	92 金星述
17 宋昌根	18 崔京甫	19 趙爽來	20 崔裕煥	93 金明濂	94 金秀明	95 金漢允	96 李恩勇
21 趙信行	22 明魯亨	23 羅宗源	24 朴成彥	97 崔文皓	98 金成根	99 崔根梧	100 崔在武
25 丁海重	26 姜杜馨	27 朱長完	28 李寬雨	101 申相甲	102 車聖鎬	103 李柱昊	104 李忠士
29 丁榮	30 金光男	31 李鍾明	32 李命宰	105 金星終	106 高鳳煥	107 車聖基	108 呂運彩
33 金日會	34 具廷會	35 金永泰	36 洪順植	109 鄭光薰	110 金萬永	111 權五澤	112 崔東燮
37 嚴世鎮	38 金孝植	39 柳相照	40 郭英吉	113 金容珪	114 韓鳳吾	115 權宰植	116 金奎星
41 李枕浩	42 朱向一	43 金英基	44 金慶錫	117 張鉉洙	118 金容琬	119 金洙炳	120 鄭炳勳
45 李大潤	46 具子書	47 韓永和	48 金振恒	121 金炯元	122 申仁吉	123 朴天圭	124 柳寅世
49 梁益煥	50 智東源	51 崔英哲	52 林茂永	125 韓英鎬	126 韓秉宰	127 鄭雨薰	128 吳在燦
53 朴炳注	54 朴普陽	55 朴稚甲	56 林俊培	129 尹汰俊	130 崔永洛	131 宋圭完	132 朱東植
57 朴漢圭	58 申性秀	59 崔淳休	60 金柄杰	133 金永祐	134 金成基	135 李鎬春	136 李永年
61 尹英儀	62 吳函宿	63 崔錫煥	64 文謹植	137 黃寅周	138 鄭虎泳	139 李善雨	140 張柱植
65 金顯一	66 金仁守	67 李鉉甲	68 尹宗浣	141 金景泰	142 申賢植	143 宋仁洙	144 南廷華
69 金時基	70 金弘植	71 趙炳泰	72 金起萬	145 金定悅	146 金東驥	147 朴文植	148 趙胤衡
73 徐承萬	74 朴濟喆	75 徐吉永	76 鄭金植	149 李明秀	150 成優植		

第8期 指導者 教育修了者

國技院 1974年 1月 14日~16日(3日間)

初, 中, 高校, 體育教師研修教育者, 延長教育

1324 河孝明	1325 邊承吉	1326 李永鍾	1327 金定悅
1328 任炳喆	1329 金柄杰	1330 宋圭完	1331 洪建杓
1332 申相甲	1333 李柱昊	1334 金星終	1335 金炯元
1336 鄭炳勳	1337 柳相照	1338 崔秉宰	1339 金起萬
1340 成優植	1341 徐承萬	1342 鄭金植	1343 朱長完
1344 文燮洙	1345 丁海重	1346 姜杜馨	1347 李奉洙
1348 金顯一	1349 韓永和	1350 崔錫煥	1351 徐吉永

1352 朴元植	1353 鄭虎泳	1354 黃寅周	1355 金明世
1356 金秀男	1357 金永泰	1358 李寬雨	1359 朱東植
1360 趙爽來	1361 金弘植	1362 金孝植	1363 金日會
1364 朴濟喆	1366 金仁守	1367 申賢植	1368 崔淳休
1369 李錫春	1370 朴晉陽	1371 智東源	1373 南廷華
1374 申性秀	1375 金明謙	1376 朴恩勇	1377 文謹植
1378 李鉉甲	1379 朴昌德	1381 具子書	1381 卞浩燮

56名

第1回 指導者(師範)補修教育 修了者

1974年 1月 28日~30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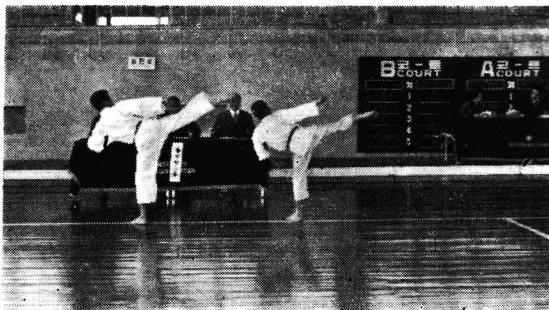
李秉奎	李奎珢	金佑永	이재철	원길수	鄭龍元	홍진표	孫香盛	유동호	嚴智榮
金貴龍	羅振海	이중식	權京旭	辛在度	원진희	李榮根	변진석	洪正夫	김 선
김용길	高興石	朱向一	盧春吉	郭基玉	楊榮善	김성재	李文鎬	崔菊煥	權吉相
洪性武	延成熙	李基鎬	柳文珪	徐廷寬	金在根	朴賢燮	서한철	오용선	朴贊明
李善載	조준호	崔模林	全性煥	朴富哲	張基善	李仁浩	姜秉玉	陳鍾鎬	李 星
安英澤	鄭承哲	朴明壽	黃春性	金東喆	鄭然權	文昌南	金永根	田壬秀	金鳳周
朴鐘福	宋洪天	文唱安	高國煥	崔익섭	權德壽	曹敏豪	申鉉模	金基勇	金鳳植
元清南	金英作	마중호	陳德英	金興洙	林載福	박옥식	윤창호	丁判鎬	尹在瑋
金 三	金成鎮	金正基	盧永喆	吳明根	白秀男				

86名

國技院

昇段審査

合格者名單



이번의 심사는 심사의 권위와 실력향상을 위해서 심사위원 6명이 모두 다른기술
부분을 담당 채점해서 공개해서 응심자의 기술연마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西紀 1973年 12月 9일부터 昇段審査 合格者에 對하여 全 世界的으로 統一된 國技院 院長名
儀의 段證이 發給되고 있다.

第22回 少年部<初段> <458名> 1973年 12月 9日

朴祥圭	연정흠	金仁鎬	申英德	李世恒
鄭基弘	田哲基	黃春性	劉柱碩	김주홍
辛誠郁	金聖采	鄭元涉	李範成	孫永琰
朱翺洙	盧璣植	김병준	孫炳烈	朴 九
백규석	李汶相	金成烈	俞文植	申太澈
김경진	俞珍烈	黃怡顯	朴琦勳	박태순
梁鉉萬	이창수	유경근	奇昌雨	黃秀一
이성진	李光哲	愼重漂	姜信友	유명규
金在明	이재경	임재중	윤재중	郭舜根
피운철	權赫敬	이용우	李秀浩	金德相
심일식	李建模	김병열	김우식	김세훈
임태훈	김성재	盧成振	趙道鎭	李相勳
이성태	元鍾潤	金泰賢	金泰奉	趙源彬
梁在權	金鎮赫	權容昱	尹成斌	韓重光
朴政昱	權泰承	金補政	金泰東	宋倫鎭
柳海蘭	尹明鎭	趙光英	崔載元	
CHARLY HONG	李柱桓	鄭九傑	韓旗尙	
金相殷	金庠希	李起承	千晒義	李起旭
金學根	洪一性	尹潤洙	金志熹	嚴景植
吉皓淳	崔源在	최용제	한진용	韓 白
俞成周	宋鎮赫	盧永上	崔哲浩	文一溟
崔城瀟	金相得	朴廣皓	文英燮	任章赫
李鍾禹	丁一權	姜聲一	金賢泰	이승만
徐路錫	김한중	申鉉瑾	李庭復	安求榮
朴景禧	李英守	신우형오	李東炫	崔在桓
李昌錫	朴成鎭	金熙培	이윤주	조해준

李相浩	朴生國	김인탁	최홍세	박정호
梁喆鎬	李世鉉	朴容範	李在紅	朴璋鎬
沈政民	김정선	朴惠敬	朝漢圭	윤종호
姜鎮遠	朴庭鎬	金世澤	鄭哲鉉	孫鍾德
崔享主	黃允南	朴寶垠	李鍾昊	安國振
裴溶煥	원동규	崔在鳳	李鍾昊	洪廷昊
서광호	金大洪	崔藝澄	崔一權	梁賢哲
이충철	이 용	최희태	조진형	朴成孝
鄭現燮	이용우	宋泰燮	金昌一	李泳雲
金雲龍	金光植	김행규	朴鍾夏	노용수
박 권	임현재	房駿鎬	박용호	조우일
최경석	柳承完	권기봉	金壽文	이시창
閔圭圭	김재일	吳官泳	김종규	崔昌華
이주현	朴明喆	丁範鎭	池東昌	金榮宰
李承赫	李鍾珉	金壽昌	李昃根	申秀鎬
李元信	이재호	申光鎬	李大成	鄭在哲
김성준	李在環	禹濟鎬	李大淵	金一相
梁孝錫	CLARENCE	金龍德	梁在峻	
宋永植	최재일	金載一	이준주	신종범
高麟協	박재원	崔載赫	具錫鎬	한병덕
문인수	김영님	허영덕	金鍾烈	金昌德
김준호	姜英中	이상기	백종기	이상준
金在烈	金壯桓	金上鉉	金政煥	이바로
宋龍子	서태현	전승수	胡圭植	朴承根
金建弘	梁允碩	홍병신	이재혁	이준우
李範柱	姜正勳	김태형	崔炳曄	崔漢圭
정재욱	문보배	朴泰善	이종재	이윤재

宋星昊	李澈勳	최두영	차준철	윤주섭	李源鍾	朴志豪	權五駿	李濟國	
최인	吳炫默	李基守	金明根	崔優哲	第56回 一般部<初段> 281名 1973年 12月・9日				
洪思吉	김명선	金億坤	이도연	金銀浩	黃夏俊	鄭燦福	金炯菩	김성운	金玄洙
정석	崔東珍	金常勳	金善一	金潤植	柳 嬉	李成一	송봉부	朴宗夏	김경식
李根實	李紋求	朴順根	李克東	孫錫煥	金東民	文德明	吳知煥	柳然哲	許文錫
金昌植	金元基	金知榮	白周榮	趙奎東	이진희	元大燮	김석규	盧壽東	박창국
林慶燮	朴長杰	李映吳	鄭賢錫	金鍾吾	김용진	이종진	張在東	安明男	백영윤
權泰熙	李大基	尹植默	한상욱	章承彥	김용철	成奎鎔	여병구	金裕翊	김종진
權奉春	황중경	俞暢老	孔載勳	郭 承	朴鍾術	李元杓	朴京洙	金希穆	朴慶壽
韓華燮	김성준	韓溶燮	金聖虎	신유식	徐順成	金舜範	朴炯昌	李鐘勳	김 홍
金亨昨	실우진	金彦秀	문성훈	정진규	이덕	김정상	梁文鎬	조준찬	李民培
이성기	김종철	유원근	김영호	黃進永	鄭永作	李廷勉	黃明燮	全舜孝	白南山
李孝澈	강창휘	林相燁	강동식	전영진	金鉉三	孫俊培	張世鎬	金基泰	정윤영
김병호	김강호	이희종	金東俊	金鶴洙	魏鶴俱	姜世男	崔男錫	宜東珍	金雨龍
종병경	權奇學	김태연	정연익	金起弘	金忠顯	李鍾範	鄭基範	李聖浩	趙在福
金美鈴	河基哲	鄭用鉉	金完洙	權基洪	柳 美	金武煥	林榮采	李潤錫	송정백
尹喜俊	金東勳	정인선	李孝健	정현기	박창한	김학부	박우환	李昌根	韓基福
韓昌承	元鍾凡	배재숙	宋熙成	신홍교	徐炯圭	이상강	전동환	趙完在	김원배
李正基	金正男	오정석	朴鶴基	白民昊	金正太	최재호	柳侑鉞	金德漢	申章均
鄭鍾錫	김재웅	金慶泰	변태영	金敬薰	金明煥	康泰權	姜泰山	조병현	權五光
白容誠	崔成赫	姜聖哲	金炫秀	金京植	田海雄	申明振	金東勳	김덕준	南富潤
鄭相儀	宋在春	李基成	박한기	劉炯碩	김영일	李英培	강조권	金泰薰	박홍희
최하수	張源吉	孫熙錫	李韓周	金明奎	崔承大	李周履	심재일	楊崇根	宋承顯
高大根	임덕준	李珠鐸	李德燮	李龍熙	李秀英	丁京鎬	崔仲敏	구승모	金鎬植
安英鎬	朴龍煥	姜信照	玉承穆	金京洙	琴次鎔	金忠湖	金鍾菩	金兌植	김용제
李英濬	金容培	李榮贊	李鍾浩	李英燮	宋同根	李永洙	宋永基	권오범	崔龍成
姜向模	金德榮	廉明憲	李憲河	享炯旭	오광철	金容辰	張相碩	襄大웅	李寬鎬
金基和	崔炯一	金美善	李湖燮	정원수	정인안	金龍煥	金法鎬	魏熙東	李錫勳
崔炳勳	玄澤洙	徐雄培	김홍석	金東植	金相俊	金龍植	吳大星	朴成鎬	金眞培
李鍾揮	趙南昊	李大圭	趙振煥	張仁哲	李貞植	胡在煥	朱景연	李庸石	金時哲
李相天	李京永	安炳哲	鄭仁鎬	李赫洙	李好雨	金炳華	金益漢	羅城麟	최동행
尹濟昌	崔勝周	金相敦	李基鐵	李源植	盧煥述	李鐘泰	金浩晟	金東植	이순상
韓相起	黃翔鉉	신우석	李石元	이명규	曹東鉉	李璵奉	邊永敏	趙炯宜	金能中
崔庚植	정연옥	徐大源	李政龍	이현복	金東奭	박동지	尹春根	韓基泉	金鐘云
權明鎬	김정우	金南日	李贊雨	沈賢輔	明濟榮	金辰龍	林茂虎	李相原	金文範
조진호	田龍國	전준배	崔煥雄	李允植	吳世榮	申德秀	李成春	趙允守	鄭龍秀
朴相勳	鄭泰燮	任光鎬	李政憲	金聖中	이재혁	權熙詰	田龍燮	李康重	李 九
魯鎬錫					金東煥	金斗榮	姜 流	李龍雨	金鎮文
少年部<貳段> 34名					洪昌根	신영승	朴守堅	鄭東信	洪承才
朴慶煥	崔鍾顯	鄭哲泳	金鍾坤	김상범	이수홍	尹泰英	우명지	趙聖元	柳周桓
李 玟	朴賢俊	權赫熙	李永鳳	李泰成	鄭大元	柳寅衡	金麟泰	文光眞	韓相詰
韓永均	崔洛民	金正植	李永鶴	金和洲	李平九	김영률	朴晚圭	金元謨	李成根
金志鎬	李康賢	尹榮基	宣鎔洙	崔漢詰	李相冠	황수창	申鉉俊	李能雨	崔興浩
金德豪	嚴敬鎬	金學柱	金哲濬	박기호	張光均	申鉉中	朴潤哲	鄭點燮	中玄雨
李泰源	金環洙	朴相煥	權五宣	金重熙	金點守	崔洪烈	이찬희	金鎬光	柳榮燬

이동환	손영선	金永南	전종영	김광배
張成淳	朴慶遠	李明鎬	趙光燮	朴龍洛
한수병	金利煥	金得壽	權寧走	閔盛基
朴仁杰	朴哲鎬	申範植	金炳成	李準基
姜基守	申亨錫	金榮煥	池泰烈	劉源根
黃周楠	李允澈	신현희	朴恩澈	柳基福
李順姬	盧水明			
WILLIE GINES JR.		LOUISF REOMEND		
LEE STENGER JAMES				
STEPHEN ALLAN JACKSON				
BO DAVIS		WAYNE S BUCKIER		
RICHARD L ESTES		JOSEPH J ADLE JR		
CHUISTOPHER R		NEILB SCHAFFER		
JONATHAN CHARLES HENKEL				
BROOKS EDGPR F. JR		WILIAM HAROY		
MELVIN SLEDGE		MICHAEL ROGERS		
IAN BVSBY		RICHARD G. AWON		
DANIEL NED THOMAS		KEIIPA AKAUA JAMES		
MICHAEL N MOORE		COTTLUER MILES		
THOMAS CLRRK		PRUMM KIRK M		
EUGENE A. TEWKSBURY				
MATTHEW WHITE		DANALD T. ISTLUND		
WTSEL D, STKKLER		FIRAN CESCO		
DENNIS RAY LAW		李來燮 姜昌元		

第56回 一般部(貳段) (25名) 1973年 12月 9日

李昌根	최석철	孫敬周	張弼基	徐辰錫
崔仲基	權赫奎	김효진	沈朱燮	金台顯
魯丙沓	張金熙	金源澤	金學濟	朴起東
金容沓	奉昌德	金成雨	李濟一	姜聲柏
安龍勳	홍장대	홍상기	李基大	姜承模

第56回 一般部(參段) 5名 1973年 12月 9日

玄原哲	宋在潤	李奎燮	金哲煥	金漢奎
-----	-----	-----	-----	-----

第56回 一般部(四段) 1名 1973年 12月 9日

金秀一

초단심사 (74년 2월 10일) 합격자 명단

○少年部제23회 합격자 405명
불합격자 43명

尹東熙	李元熙	강병훈	최병일	梁棟直
千德榮	김종민	金建女	朴文秀	吉昌均
유영종	鄭旭	文勝煥	羅承復	유진상
洪性守	洪錫濟	盧載億	林光鎬	洪性澈
金振雄	金采國	김동찬	文曉範	黃圭鉦
鄭鎬虎	嚴泰龍	조준중	金宗國	김정훈
申寅澈	洪善吉	金泰中	南官雨	李正煥
이주성	秋昌昊	金珠東	宋俊澈	정용빈

金淵弘	위태량	全始英	김태용	조준영
유재상	윤철영	金一起	沈佑鍾	조하영
崔盤	권오상	曹在純	김성검	金善藏
李鎬源	김도준	서정근	白賢鍾	유창열
黃鎬想	김태경	이순호	宋大鎬	金洪中
이재현	송성준	金佑鎬	文鍾健	채종문
김창선	주창호	崔承德	함석원	張太賢
김익수	김대승	민휘동	李宗勳	배영철
成東一	강선구	李承炫	金辰基	林昌洙
金正吉	金昇起	임광찬	韓楨熙	李成雨
김광하	高相結	노영훈	박찬식	진호석
姜承鎬	김남식	金亨淳	李東林	이진기
최창상	玄基奉	朴俊	Tory Yamaguchi	
김민기	Jasmine Y. maguchi		하태만	
Adria Pifer	김주한	Anthony Pifer		
인병훈	지상훈	李英朝	金鳳玉	李玟九
高雲福	崔鎬旭	엄기태	吳英錫	金奎男
鄭永照	김덕구	朴平遠	이병준	허광선
金鍾結	정진수	金秉洙	黃榮極	梁載溶
金勉成	尹永根	金太刑	金民錫	吳承禹
邊承哲	張成三	정익진	姜滑根	林信
姜渭文	姜泰旭	吳世晶	鄭盛雲	金相淳
李起哲	崔最旭	金政滿	박재원	백문현
고용하	崔翼宰	金錫鎬	李允久	李暢植
金載寅	丁鎬成	趙慶奎	李浩元	宣炳斗
金漢洙	신금희	宋泰一	權寧堂	崔容濤
朴容範	崔泰燮	安聖賢	金鍾錫	이철
權炳三	金才熙	孫正賢	서상선	林鍾均
尹盛煥	全鍾濤	안태훈	金鍾勳	元鍾勳
李準洙	李在弘	李喆熙	金水喆	金光洙
이종갑	金容奭	柳旭鉉	金永來	黃鎬光
崔榮日	鄭志福	이연우	안인준	金南基
宋鎬旭	이항진	崔元錫	吳英漢	張東業
高晏石	조종호	申守根	추원용	박만식
李智炫	김병준	朴永煥	朴院基	金容範
金奎東	尹汝根	金鐵浩	金泰景	吳東水
李宗錫	李昌時	金仁煥	李長植	李翰承
沈俊昊	黃寅皓	오형식	裴昌大	金水鎬
김용철	李商僖	康敏漢	金晚坤	朴鍾現
朴東珠	金晟鎬	李忠熙	김명현	尹在英
金榮鎬	申奎植	박상배	林湜	李炳斗
조성돈	박순성	禹勇男	권성우	姜宗聲
윤정학	金顯喆	박노웅	李宗桓	임유택
姜東顯	李尙恒	宋秉錫	金泰協	박일훈
宋政憲	김인철	吳濬祿	鄭宅均	崔承

권영달	金俊沅	허성태	李正健	李起榮	이종원	李善榮	홍상진	李琦榮	김영석
金文錫	권영필	金秉泰	金興俊	민태경	김봉갑	김지도	김정옥	황동주	신태환
金東秀	禹尙協	洪聖賢	趙鍾敏	金世鎭	황오진	趙恰哲	황준하	심광수	金鍾國
金弘燮	김종민	韓 忠	尹赫伯	황의진	安貞美	김상철	황태주	池興鉉	민효기
문준원	이덕태	朴鎭植	金明鎭	崔峰碩	孫基哲	성무제	李東彦	이상규	孫基範
李相鉉	최경보	姜承旭	鄭隆鎬	金天福	林森悅	李在仁	金載坤	김현정	徐昌源
安晨植	金璫昊	宋文恒	朴致學	金榮洙	이승휘	朴喜明	이종현	禹昇燮	白承宙
배종대	姜信赫	박인태	李準浩	陳成權	崔勝湖	申益周	朴皓辰	權致洪	申京穆
李鎭圭	정재훈	이영제	金宣中	吉龍均	朴載湖	金大洙	趙柄贊	張宰赫	이상용
李大熙	趙誠一	유학희	韓相映	徐商震	이완진	문상민	金 榮	송인방	楊永國
朴珉性	박상옥	金在碩	尹相結	柳英哲	조성우	정재훈	신광열	崔詳德	孫英煥
石大敏	金聖鎭	임진호	李景烈	張 暉	朴昌圭	정 철	임영일	沈撥石	金性完
安在承	咸在俊	郭順根	嚴泰和	金銅憲	金德虎	權純昶	최병길	車英振	김동철
정순환	김현경	朴鍾五	申旻秀	申道秀	姜熙哲	심중보	李明宰	박정일	김선필
李東遠	全泰俊	李承覆	김종남	李錫圭	崔昌錫	홍순서	李元根	李太熙	윤영도
권기대	李珍錫	전진석	장현수	하태권	문은배	정병태	李 漣	李成九	김우수
趙鍾億	이석준	박창근	申在均	趙在敏	林百成	김임중	朴光用	李竣豪	이병준
河宗錫	崔 旻	李熙雄	李舜辰	이기석	崔秉郁	정우종	정정광	黃重勇	李成俊
김제철	조재범	申哲均	이승연	이창혁	최정일	임상업	金弘燮	朴益諸	장영철
朴炳在	이종선	정종호	金世潤	韓珉求	문승준	안영환	김태환	김기현	河東國
한영환	이창열	李龍鎭	柳志重	朴承烈	張豪敏	윤재현	김연우	이신철	이득신
길종화	黃一洙	金振奎	조옥촌	안강국	이정현	박종수	손시호	양영균	김성환
崔鍾仁	김형로	全基結	李秉結	서도원	나효우	윤병서	전영근	전영욱	김성준
장경수	김강태	姜信弼	崔泰圭	崔興哲	金永雄	박종열	송정호	이석재	임진오
李浣晚	尹弼善	이두형	朴光濬	朴倉震	이창주	李啓王	(Richard D Legall		
安光振	鄭洪根	이기호	羅 雄	孔晨珉	Daniel E. Wade	Mitchell Harleey			
趙昌柱	柳根植	姜眞熙	奇俊結	장기홍	(소년부 貳段)				
강종석	이상목	장호영	김민조	김규일	金載學	김현서	Lee Man Ho Hannah		
裴石雲	우형일	이승훈	최희영	郭健容	李善覆	배갑태	盧彰錄	金鶴哲	손권배

소년부 23회초단 명단(1974. 2. 16)

<합격자>

金載煥	이훈재	홍승호	정해관	金兄寧	李善覆	배갑태	盧彰錄	金鶴哲	손권배
金明石	朴順植	金世潤	金永三	김민수	宋龍晚	김상옥	王永南	안기석	김종석
白雲植	金尙起	崔載皓	김종태	허신형	송정문	김종화	金泰奉	김종만	林昌洙
김암호	金知泰	金義英	이정교	오상훈	신윤성	김상진	신창은	김상훈	이상훈
金成坤	김희규	李鎬純	이웅수	박성열	崔昌睦	김원창	김원창	金容鉉	김원진
朴日在	조성운	송석호	太源峻	李昇禹	김우삼	김동철	김경훈	박성호	허득무
이동호	황범수	한상철	장승태	정창훈	김현일	성낙규	이창호	김선백	白光彬
황한주	洪完植	沈昶燮	南碩祐	황한상	千昌允	宋基澤	表承勇	李百三	韓相顯
金洪植	金泰源	李尙勳	鄭一弘	변성립	崔在完	沈英來	全智弘	심재수	김호준
禹柄熙	최병진	김용일	김용현	이광재	趙駿完	이영호	최용석	이주한	박영준
김승희	이호영	權淳欽	劉宇鎭	金光烈	全興成	沈慶美	임태운	宋賢相	金永玄
申潤澈	최도영	이경태	金 信	김우조	李洪瑞	전재호	尹願久	김범중	황창영
鄭恩承	이무영	金英中	韓錫一	李忠燮	김호영	(Gippetto Francis)			

跆拳道研究

一九七四年은 跆拳道 實質上의 해이다. 實技뿐만이 아니고 理論을 겸비한 跆拳道를 完成하기 위해 이 페이지가 百五拾萬跆拳道家族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目次

- | | |
|------------------------|--------|
| (1) 응급 처치법 | 崔 泰 鎮 |
| (2) 跆拳道를 위한 體力強化 | 유 근 석 |
| (3) 跆拳道教室 | 技術審議會論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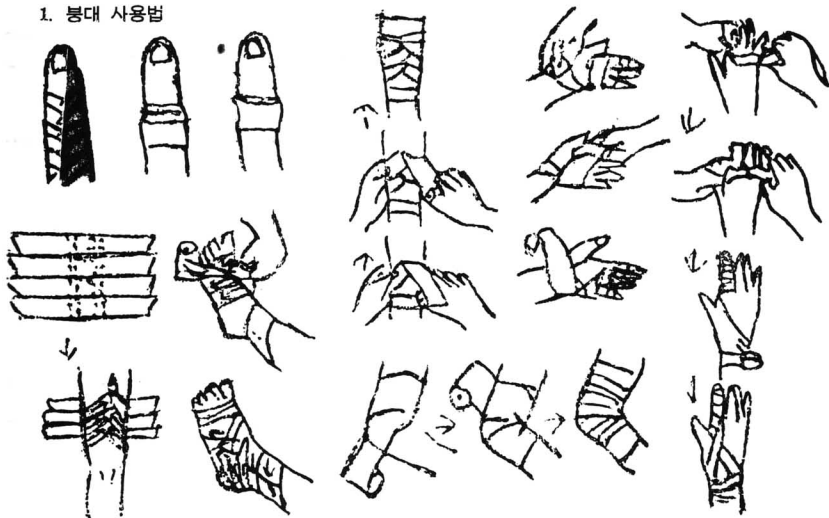


응 급 처 치 법

崔 泰 鎮 (崔스포츠탈사지물院長)

도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범님이나 시합때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유단자님들이 수련생이나 시합때 선수에 대하여 손이나 발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고전을 할 때 붕대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이번에는 붕대사용법과 선수들의 시합전 몸을 풀어주는 맛사지 과정에 있어서 맛사지 요법을 적어 볼까 한다.

1. 붕대 사용법



풍대는 상처에 덴 꺼—즈를 고정시키는 표적외에 지혈하거나 부목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가) 풍대를 우측으로 굴리듯이 감아가는 것이 요령이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좌측으로도 감는다. 풍대의 크기의 종류는 2인치, 3인치, 4인치가 있다. (국내 생산품의 종류)

나) 손이나 발에는 풍대를 감아갈 때는 가는쪽에서 굵은쪽으로 감아가되 몸의 가운데서 중앙쪽으로 몸에서 멀어지지 않게 굴리면서 감아간다. 풍대의 겹침은 풍대의 폭의 반 정도다. 용정도씩 겹쳐 감는다.

2. 감는 종류와 그 사용법

풍대의 감는법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세가지를 기억해두면 편리하다.

가) 환행대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으로서 처음감는 풍대위에 겹쳐서 돌돌 감는 방법

자그마한 상처의 경우나 다른 방법에 의해 감는 치음과 맨끝나리에는 매번 헐겁지 않다.

나) 나선대

나선상(나사모양)으로 말아가는 방법, 이것도 흔히 쓰이는 방법으로써 처음감는 풍대쪽의 홀이나 용정도씩 겹쳐 감는다.

다) 절전대

나선대로서는 헐거워지기 쉬운 굵기의 차가 심한 전대이나 하지 등에 쓰이는법 처음에는 앞서말한 환행대로 두어서너번 감고 이어서 비스듬히 감고 다음은 접어젖혀 앞뒤가 반대로 되게하여 아랫쪽에 향해 다시 감고 이를 반복한다. 감는 풍대의 폭을 홀이나 용정도 겹쳐 이를 반복하고 주름을 만들어 간다.

3. 특히 수족에 대한 대법

어깨등을 감을때의 요령을 알아둔다. 수족의 경우는 선단에 가까운 쪽에서부터 감기 시작한다. 첫번 한번 감았을때 (가)쪽을 내어두고 두번째 감을때에 그 가를 접어젖혀 감으면 헐겁지가 않다. 수족의 선단을 감을때에는 손목이나 발목에다 끝머리를 환행대로 하여 멈춘다.

관절에 걸릴때에는 절전대, 하지의 경우는 발목에서 환행대, 종아리에서 절전대 도중은 나선대로 마지막에 무릎아래에서 환행대로 하여 멈춘다. 무릎의 경우는 나선대로 그 상하를 환행대로 하거나 뒤젖혀 감고나선 멈춘다.

輕擦法 : 맛사이지 하는 방법

맛사이지 手技 가운데 많이 쓰이는 方法으로서 術者의 손이 상대방 몸에 붙어서 만지는 手技로서 皮膚 筋肉 血管의 經路를 잘 유하게 結合시켜주는 方法으로서 그 手技는 다섯 種類가 있다.

1. 手掌擦經法 : 손바닥 전체로 맛사지하는 방법

한손 또는 양손 바닥을 상대방 몸에 붙어서 적당한 압(壓)을 가하여 부드럽게 문지르는 맛사이지 방법이다.

背中 脊, “등” 또는 腹部 上腕 前腕 大腿 腿下같은 넓은 장소를 맛사이지 할때 쓰이는 방법이다.



2. 母指輕擦法 :

일지손가락으로 맛사이지 하는 방법

한손 또는 양손의 일지 손가락의 끝으로 맛사이지 하는 방법으로서 手指 (손가락) 足指 (발가락) 手背 (손등) 足背 (발등) 뼈와 筋肉의 中間까지 등에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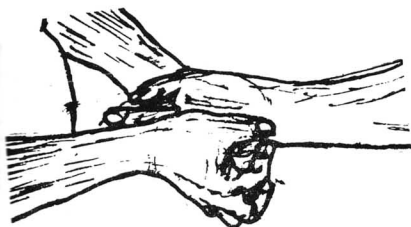
3. 二指輕療法:

엄지 또는 이지로써 맞사이지하는 방법
엄지와 이지의 중간으로 짤는 것과 같이 맞사이지하는 방법인데 하는 곳은 手指 足指 前腕 下腿에 아키텔레스筋 같은 곳을 많이 사용한다.



5. 指腕輕療法: 주먹을 쥐고 손가락 마디로 맞사이지하는 방법

이 지과경찰법도 한손 또는 양손에 주먹으로써 네 손가락의 基節과 中節로써 맞사이지하는 手技로써 背中 大腿 下腿 손바닥 발바닥이나 筋肉이 단단한 곳에 많이 사용한다.



4. 四指輕療法:

엄지 이외 삼지사지의 手指로써 맞사이지하는 방법 이것은 한손 또는 양손으로 四指를 동시에 사용하는 장소는 頭(머리) (안면) 또는 胸(가슴) 腹(배) 같은 곳을 많이 사용한다.

◇ 表紙의 말 ◇



지난 一九七一年 3月 跆拳道誌가 고교의 聲을 올린지 어언 三年 이제 十一號를 맞게 되었다.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한두가지가 아니었으나 人間에게 회고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뒤돌아보는 그 追憶에만 머무를 수는 없다.

時間이란 흘러가는 물같은 것으로서 人間을 가만히 서 있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간다. 어느 누구에게나 기회와 條件은 똑같이 주어진다.

누가 더 이 條件을 善用하고 充實히 運營 하였는가에 달려있을 뿐이다.

쉽지않고 일하는 일꾼이 되자.

그리고 이 태권도지가 여러분의 힘이 되고 희망이 되도록 最善을 다하자

여러 讀者들의 성원을 빌 뿐이다.

지금까지의 表紙를 모두 한자리에 모아본 지금 이 經驗을 받들어 꾸준히 새 歷史를 創造하고 記錄해 가고자 한다.

.....變.....



跆拳道를 위한 體力強化

(連載 10回)

유근석 (漢陽大體育大學長)

前號까지는 筋力을 強化하는데 對한 問題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므로, 다음은 <스피이드를> 빠르게 하는 訓練方法을 論議하기로 한다.

스피이드는 運動競技에 있어 重要な 要素가 되며, 競技力 向上에 큰 偉力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一般의 으로 스피이드라고 하는 말에는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明確한 概念을 把握해서 訓練에 임해야 한다.

1. 스피이드의 種類

우리가 常用하는 파워(Power)는 곧장 힘(F)과 속도(V)를 곱한(積)한 것이라고 解析하여 $P = F \times V$ 로 나타낸다. 이때의 속도는 筋肉의 收縮의 速度를 뜻하게 된다.

그러나 全體의으로 動作을 말해서 “스피이드가 있다”고 할 때는 筋肉의 收縮速度가 빠르다는 뜻 외에 神經系의 反應이 빠르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또 달리기 있어서 스피이드가 있다는 것은 身體의 移動이 빠르다는 뜻으로서, 筋肉의 收縮速度가 時間的系列 속에서 계속적으로 높은 程度를 유지할 수 있는 能力을 가졌다는 뜻이 된다.

이같이 複雜한 狀況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을 集約하여 分析하면 結局 神經에 關한 것과 筋肉에 關한 두 가지 問題로 나눌 수 있으며 다시 細分하면 다음과 같다. 即

(1) 첫째로 全身反應時間이라 하겠다. 身體反應時間이란 어떠한 刺激을 귀(耳)로 받아들이거나, 눈(眼)으로 받아들여, 이것에 따라 재빠른 反應을 나타내는 데 所用되는 時間을 말한다. 이와 같은 反應은 神經性 要素와 筋肉性 要素가 서로 作用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그 어느 하나가 不足해도 反應時間은 길어지게 되고 따라서 動作은 느려지게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外部에서 받은 信號나 刺激이 大腦로 傳達되고, 大腦에서 다시 必要로 하는 筋肉에 刺激을 주어, 그 筋肉이 收縮이란 反應을 보이게 되는데 이 過程이 될 수 있는 限 빠른 것이 좋다는 것이다.

(2) 둘째로는 筋肉의 收縮과 弛緩의 反應을 어떻게 재빠르게 하느냐 하는 反應速度의 問題이다. 이것은 神經의 交換作用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問題와 筋肉의 收縮·弛緩의 機能速度에 따라서 左右되고 있다. 이것은 神經과 筋肉의 協定作用(coordination)이 圓滑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써 얻을 수 있는 成果라 하겠다

(3) 셋째는 筋肉收縮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하는

收縮에너지의 供給이 좋으나 나쁘냐에 따라서 크게 關係가 된다. 收縮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筋肉은 그 에너지에 의해 收縮을 可能하게 하며, 筋肉量이 크면은 곧 수록 그 에너지를 蓄積하게 되는 것이다.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化學的說明을 하면 <그리코젠>이나 ATP, 크레아틴磷酸 같은 에너지物質이 筋肉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問題가 筋肉運動에 重要な 役割을 한다.

跆拳道 競技는 長時間을 所用하는 競技가 아닌 까닭에 스피이드한 體力要素가 必要하며, 그러기에는 筋肉量을 늘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意味에서 重要的 問題라 하겠다.

2. 스피이드의 訓練方法

스피이드의 訓練은 筋肉의 收縮速度를 빨리하고 神經疏通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訓練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決定的인 方法이 없으나 原理에 따라서 다음 같은 것을 參照하여 研究하고 方法을 開發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알려진 知識이다. 即

(1) 神經訓練을 하려면

(a) 信號나 指示에 따라 빨리 反應動作을 反應訓練하고

(b) 精神集中 練習을 하며

(c) 短時間内に 急速 反應運動을 達達시킨다는 것이다.

(2) 筋肉訓練을 위해서는

(a) 筋力을 強化하고,

(b) 筋肉의 收縮과 弛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訓練하며

(c) 最大筋力의 1/2의 強度의 負荷로 빠른 動作을 하게 하는 練習을 하게 한다.

(3) 最大酸素負債量을 높이는 體力를 기른다.

이상과 같은 訓練의 實例을 參考로 提示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跆拳道競技力 向上을 위해서는 躑躅, 날뛰 動作을 할 수 있게 訓練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하겠다. 그러기에는

(a) 號角이나, 손뼉을 울려 이 信號를 발자마자 곧 움직일 수 있도록 몇번이고 訓練시켜야 한다. 울린 이와같은 練習이 어느 程度 效果를 거두면 電燈이나, 빛으로 信號를 주어, 그것을 눈으로 보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귀로 듣고 움직이는 것과, 눈으로 보고 움직

이는 速度가 다르며 大體로 눈으로 보고 움직이는 것 보다는 귀로 듣고 움직이는 것이 빠른 것이다. 따라서 귀로 듣고 움직이게 한 다음 보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效果의이다.

跆拳道는 100m 달走的의 스타트와 같이 피스틀의出發信號로 움직이기보다는 相對가 攻擊하여 들어오는 팔과 다리를 눈으로 보고, 行動하여야 하는 까닭에 終局的인 訓練은 보고 움직이는 動作에 熟達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信號에 따라 反應하는 時間을 앞서 말한 것 같이 <反應速度>라고 하고, 이것은 練習에 의해서 短縮되어진다는 事實을 알고 있다. 스피이드를 빠르게 하는 첫 段階이므로 집중내지 말고 忍耐性 있게 다져 나가야 한다.

이 練習의 效驗을 얻으면 다음으로 움직이는 方向을 提示해 준다. 이를테면, 손을 앞으로 내민 <뒤로 움직이고>, 손을 몸으로 당기면 <前進>, 좌로 틀면 <左進>, 右로 틀면 <右進>, 머리 위로 올리면 <跳躍>, 손을 위로 들어 올리면 <廻轉>等等으로 定하고, 指導者는 손으로信號하여 被教育者가 指示한 方向으로 自由自在로 變換히 움직일 수 있게 訓練한다. 이와 같이 反應하는 것을 選擇反應 或은 讀信反應(reading reaction)이라고 한다.

(b) 精神集中 練習

이 方法은 많은 手法이 있기는 하나 흔히 쓰여지고 있는 것이 默想이나, 冥想의 訓練이며 積極的인 方法으로는 豫念을 주어 緊張하게 하고, 다음 동작을 準備시키는 方法이다. 이를테면 <차려>한 다음에 動作을 命한다.

即 <쉬어> 或은 <앉아> 또는 <뒤로>等等……

이와 같이 하면 다음에 어떠한 命令이 내려질지 모르는 까닭에 精神을 集中하고 指導者에 注目하게 되며, 雜念이 스며들거나, 注意가 散漫하게 되어지지 않으며 이것이 習慣으로 形成되면 相對가 앞서게 되면 自然 精神이 集中되게 된다.

이와 같은 訓練은 平常時에도 訓練이 가능한 것으로서 路上에서 交通信號에 걸렸을 때에 進行信號(파란등)가 켜지면 大家 속에서 내가 第一 먼저 발을 옮기겠다고 準備하고, 精神을 集中시켜 信號燈을 보고 기다가 불이 켜지자마자 곧 出發하도록 努力하는 것도 좋은 方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方法은 日常生活이나, 遊戲種目에도 많으므로 研究하여 興味있는 方法을 採擇하는 것이 더욱 效果의이다.

(c) 短時間 內에 急速 反復運動을 하는 方法은 <제자리 달리기>가 效果의이다.信號에 따라 100m 달走를 하듯이 제자리에서 뛸 수 있는 대로 빨리 달린다. 그러므로, 허벅다리들 높이 들지 말고, 빠른 밧치로 움직이도록 지도하여야 한다.跆拳道에 있어서는 이것 외에 攻擊이나, 防禦, 或은 이 兩者를 混合한 하나의 <연결 동작>을 뛸 수 있는 대로 正確하고 빨리 되풀이하도록 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믿는다.

勿論 이와 같은 練習은 <스톱워치>나 이에 比等한 時計로 動作의 始作과 完了 時間을 測定하여 恒時 發展 狀況을 評價하고, 問題點이 생기면 解決에 格別한

注意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筋肉訓練을 위한 實例에 言及하고자 한다.

(a) 筋力強化

筋力이 強化되면, 筋收縮 速度를 크게 短縮시킬 수 있는 機能을 發生한다. 따라서 筋力을 強化하는 때에 게울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筋力強化는 筋肉의 파괴를 크게 만들어나 하므로 自然 筋肉量이 커지면 그 속도에 適應하는 收縮에너지가 커진다는 利點을 알아야 한다. 筋力強化에 對해서는 前號에 所상하게 言及하였기에 이에서 省略하고 單只 最大筋力의 力의 強度의 負荷로 身體各部의 動作을 빠르게 하는 訓練에 傾注하여야 한다.

이러한 方法은 筋力을 適正히 使用하여 最大의 스피이므로 筋肉을 收縮시키는 機能을 거의 反射的으로 이루어 가는 좋은 經驗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人體의 筋肉에 收縮되어 큰 工率을 얻으려면, 自己가 가진 筋力을 最大로 使用하는 것보다는 最大筋力의 力의 程度를 使用하여 動作하는 것이 效率의이라는 實驗의 證明이 있는 까닭이다.

특히 力이 競技力을 向上시키는 것이 아니라, 힘의 使用 按配가 記錄向上에 더큰 役割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b) 筋肉의 收縮과 弛緩을 빨리하게 하는 方法은 徒手體操을 意識的으로 하는 方法이다. 即 힘을 주고 급했다가 힘을 빼고 퍼거나, 힘을 빼고 흔들다가 힘을 주고 드는 등 하나하나 意識的으로, 첫 段階에서는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사람이 日常生活에 있어 거의 無意識의으로 筋肉을 使用하고 있는 까닭에 收縮과 弛緩의 差異를 意識하지 못하며 따라서 힘을 주는 것과 빼는 것에도 能熟하지 못하다. 특히 힘을 늦추는 것보다는 筋肉을 弛緩시키는 것이 힘들며, 이것은 訓練에 의해서 習得되어야 한다.

競技의 初步者들이 競技를 運營할때, 大體로 몸이 굳어 보이는 것은 筋肉의 弛緩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러한 結果가 나타나는 수가 많다.

筋의 收縮과 弛緩의 作用이 빠르게 되게 하려면 筋肉의 弛緩이 선행(relaxation) 이외에 相反의 神經支配(reciprocal innervation)가 또한 잘 이루어지도록 되어야 한다.

身體가 運動經驗을 갖게 되려는 이와같은 構造의 有機的 機能이 圓熟하게 되며 行動이나 動作의 速度를 크게 變化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意識的인 데서 無意識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限度까지 訓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言及하고 싶은 것은 最大酸素負荷量을 높이는 訓練이다. 最大酸素負荷量이 커지면 커질 수록 急速運動에는 有利한 條件이 된다. 이 訓練은 游泳이고 건지기, 水中 잠수 운동 등이 좋으며 酸素가 必要하게 運動을 하고, 酸素供給에는 障礙를 주어 酸素負債에 건지게 하는 方法을 取한다.

이러한데 흔히 쓰이는 方法은 마스크를 하고 달리는 運動을 하게 하거나, 競技練習을 하게 하는 方法도 있고 低酸素狀態에서 運動을 하게 하는 方法도 있다.

1973년도 대의원총회

—'74년의 전진을 다짐—

The Annual Meeting of the Representatives

--Pledges for "A Big Step Forward" in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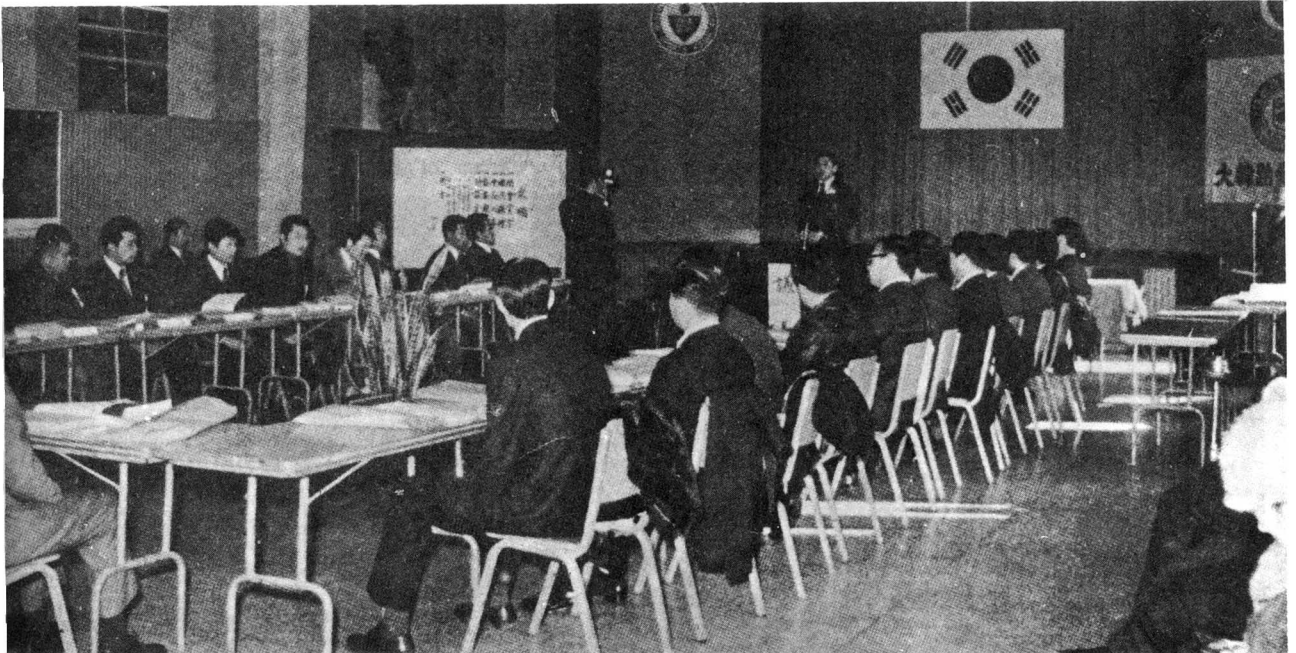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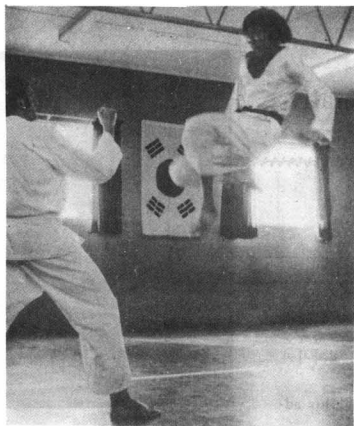
대한태권도협회 김운용회장은 인사를 통해 「국제정세에 발 맞추어 유신체제를 강화하고 태권도정신으로 전태권도 가족은 알찬 전진을 꾀하며 태권도를 세계 스포츠로 발전 정착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역설했다.

President Kim Un Yong of the Association, through his address at the meeting, emphasized as follows:

"To keep up with the changing world situations, we must reinforce the Revitalization Refrom system. All the members of the Taekwondo family, let us pledge to do our best in making a real bing step forward this year, for the future foundation of Taekwondo. And let us bear in mind that the year 1974 must be a turning points in which our aspiration to popuplarize and establish Taekwondo as world sports all over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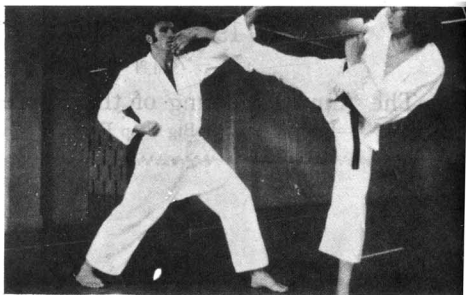
1973년도 대의원총회가 1974년 1월13일에 The Annual Meeting of the Representatives for the year of 1973 was held at the 대한체육회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confereence room of the korea amateur Sports Association on January 13, 1974.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George Lee가
「뛰어차기」를 하기 위해 공 중에 높이 솟았다.

George Lee of American jumps up
in the Air to prepare a "jump kick"
demonstration.



George Lee's perfect performance of 'Side
kick'

George Lee의 정확한 「옆차기」 동작

온세계가 태권도 품안에 Taekwondo Around the World —News Brief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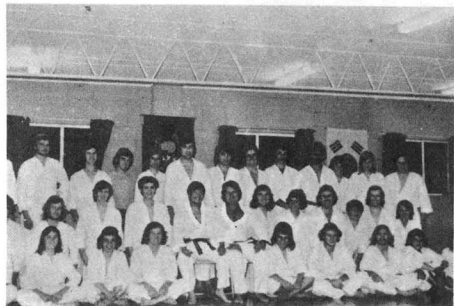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의 태권도 아카데미
도장에서 이춘봉 사범(왼쪽에서 두
번째)의 구령에 맞춰 수련에 열중
하고 있는 수련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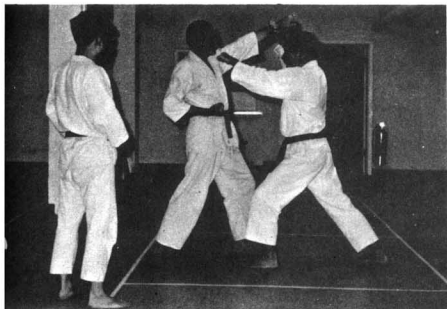
Australia

A group of the Australian trainees is eager to learn under the Instructor Lee Choon Bong(second from left) at the Academy Gym.



수련후의 기념 촬영. 이춘봉 사범
(중앙) 옆에 F.A. Griggs씨(협회
3단)가 앉아 있다.

A photograph of the above trainees taken after a training at the Gym. Mr. F. A. Griggs (3rd dan) is seen alongside of Instructor Lee (center).



The United States 미국 버지니아주의 조경선 사범이 「겨루기」를 지도하고 있다.

Instructor Cho Kyung Sun, Virginia, keeps watching while two contenders are practicing a competition form.



West Germany 역시 서독의 박광철사범의 「앞차기」 시범.
Here Instructor Pak performs a "Flying front Kick."

온세계가 태권도 품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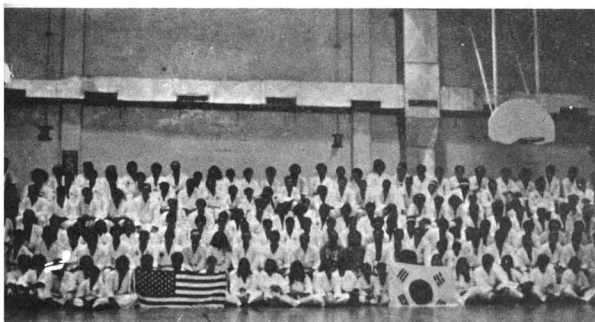
Taekwondo Around the World

—News Briefs—



서독의 박광철 사범이 「뒤돌려차기」의 묘기를 보여주고 있다.

Instructor Pak Kwang Cheol demonstrate the form of Turn-around Kick."



Guam Islands

괌도(島)의 지동주 사범과 수련생 일동.
Trainees with Instructor Ji Dong Joo.

제 3 차 이 사 회 의

The Third Meeting of Trustees



제3차 이사회의가 1974년 1월9일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The Third Meeting of Trustees was held at the Conference Room, of the Korea Amateur Sports Association, on Jan. 9, 1974.

이런일

A Pictorial Report



제 3 차 이사회 자리에서 김운용 국
기원 원장이 정인영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에게 명예단증을 수여했다.

At the meeting, President Kim Un Yong of the Association presented the certificate of honorary dan to Mr. Jeong In Young, Vic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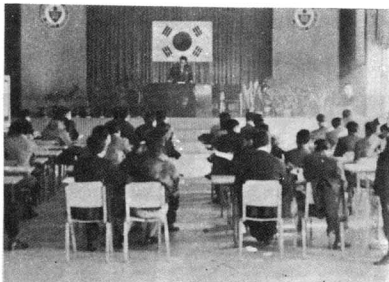
이 자리에서 최각규이사도 김운용
원장으로부터 명예단증을 수여받았
다.

Also here, Trustee Choi Kak Kyu was awarded a honorary dan certificate.



1973년 12월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학태권도연맹 창립총회에서 김운용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The Korea College Taekwondo Federation has been founded in December, 1973. President Kim Un Yong delivers a congratulatory address at the Initial Meeting.



중·고교 태권도연맹도 창립총회를 가졌다. (1973년 12월 15일 체육회) 제1회의실

The Korea Middle and High School Taekwondo Federation has been also formed at Conference room of the Korea amateur sports association at December 15, 1973

저런일

of Current Events



시·도지부 및 각관 실무자회의(1974년 2월 16일, 체육회의회의실)

The Local Administrative officers' Conference was held at the conference room of the Korea amateur sports association on February 16, 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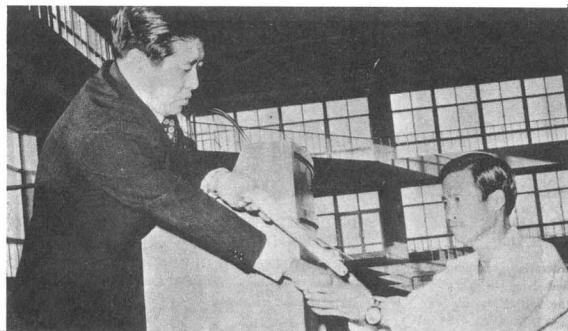


김운용 세계태권연맹 회장이 윤석헌 주불대사에게 명예단증 수여했다. (1974. 2.)

President Kim Un Young of the World Taekwon Do Federation presented the certificate of honorary dan to Mr. Youn Suck Hun, the Korean Ambassador to F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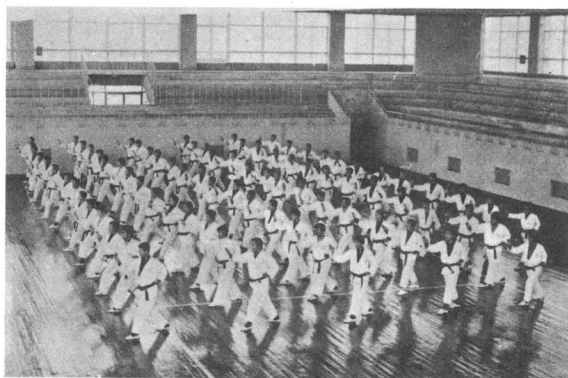
초·중·고교 태권도 지도교사 연수교육

Training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Instructors



초·중·고교 체육교사 및 태권도 교사 연수교육 수료식에서 150명의 수강자를 대표하여 임준배 교사가 김운용회장으로부터 수료증은 받고 있다. (74. 1. 12)

President, Kim Un Yong Presents Certificate of Graduation to Mr. Im Joon Bae representing 150 trainees on completion of a training course for th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ae kwondo Instructors.



폼세강의를 받는 교사들

Trainees Practice performing Patterns.



김운용회장이 베푼 오찬회(74. 1. 11)

A dinner party given by President, Kim Un Yong.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일행
15명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국기원으로 김운용회장을 찾
아 인사를 하고 있다.

The Association sent a Cub
Demonstration Group of 15 me-
mbers to America. The Group
visited upon President, Kim Un
Yong before their departure.

미국에 도착한 “한국의 보배” 태권도 시범단원
“Korea Little Tresures” in United St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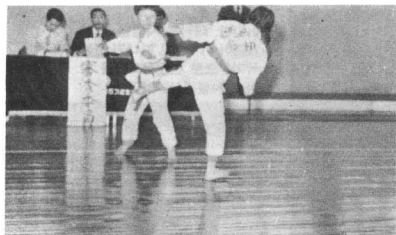
자유중국 태권도 연맹 부회장 진양광씨가 세계연맹의
결성을 상의하기 위해 내한 하다. (1974. 3.)

Chern Liang Kwang Vice President of the
Taekwondo Association in Republic of China
visited Korea to talk about World Taek-
wondo Federation.

오스트리아 태권도협회 사범인 이경명씨가 대한태권도협회에
타이프 라이터를 기증하다.

Lee Kyung Myong Instructor of Austria Taekwondo Association
presented a typewriter to Korea Taekwondo Association.





소년과 소녀의 겨루기 (겨루기 심사부)

A boy and a girl Contend before the umpire.



소년부 초단 응시자들

Boy's 1st dan applicants.

국기원의 심사 (1974. 2. 10)

The Rank Promotion examination of Kuk ki won.

품세심사부에서 품세를 보이는 꼬마들

Boy applicants demonstrate pattern for approval by the judges.

자질향상을 위한 논문시험이 국기원에서 시행되다

A Thesis Examination was held at kukkiwon for quality promotion.



초단 응시자들의 품세

1st Dan Applicants demonstrate pattern for approval by the Judges



초단 응시자들의 겨루기

1st dan Applicants Contended before the umpire.

